

리아호나

구주께서 주시는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 18쪽

낙담할 때는 나인의
과부를 기억하십시오,
12쪽

음악: 성스러운
동산에서, 24쪽

사랑과 기쁨, 평안에
관한 세 가지 교훈,
26쪽



여기에
교회가
있다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눈 덮인 에스야 산을 뒤로하고 있는 아이슬란드의 화려한 수도 레이카비크가 유럽 본토에서 1,609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이 섬 나라에 오는 이들을 반긴다. 서기 874년에 바이킹족이 처음 정착한 도시 레이카비크는 아이슬란드의 문화, 경제, 정부 활동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도시이기도 하다.

두 명의 아이슬란드인이 1851년에 덴마크에서 최초로 침례를 받았다. 그들은 곧 아이슬란드로 돌아왔고, 1853년에 첫 지부가 조직되었다. 오늘날 아이슬란드에는 거의 300여 명의 회원이 있고 레이카비크와 아퀴레이리, 셸포스에 각각 하나씩 총 세 개의 지부가 있다. 가장 가까운 성전은 레이카비크에서 1,894킬로미터 떨어진 영국 런던에 있다.

이곳의 회원 수는 적지만,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고립된 위치, 교회 자료의 미비한 번역, 악천후 및 문화 장벽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언젠가 아이슬란드가 다른 나라들을 비추는 등대가 될 것임을 약속해 왔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아이슬란드를 방문해서 회원들에게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할 ‘힘과 능력과 역량’을 지닌 사람들”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Wonderful to Have Sweet, Good Land,” *Church News*, Sept. 21, 2002, 10)

- 1894년에 아이슬란드 선교부가 조직되었으나, 1914년에 전도 활동이 중단되었다. 1975년에 아이슬란드가 덴마크 코펜하겐 선교부의 일부가 되었다.
- 1977년에 당시 칠십인 제1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조셉 비 위스린(1917~2008) 장로가 복음 전파를 위해 공식적으로 아이슬란드를 헌납하였다.
- 1981년에 물론경이 아이슬란드어로 출판되었다. 아이슬란드어는 세계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쓰이지 않는 언어이다.



낙담할 때는 나인의 과부를
기억하십시오

키스 제이 윌슨

12



구주의 구원을
신뢰하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18



기쁘게 성역을
행함
8



사랑과 기쁨, 평안에
관한 세 가지 교훈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26

낙담할 때면

인 생에는 굴곡이 있게 마련이다. 때로 낙담할 때면, 사랑이 많은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난관에 처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거나 하신 걸까?” 하는 의구심마저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내 경우 아래의 경전 구절이 도움이 되었다.

- **시편 8:4~5.**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 **요한복음 10:14.** 이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 칭하시며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덧붙여 말씀하셨다.
- **모세서 1:39.** 이 구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주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해 주신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고, 나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은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심을 역설한다.
- **누가복음 7:11~16.** 이 이야기는 부활 절기에 딱 맞는 이야기로, 사망을 이기신 구주의 권능에 관해 가르칠 뿐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예이다. 예수께서 보이신 모든 기적 중에 나인의 과부에게 베푸신 성역만큼 따뜻하고 연민 어린 기적은 거의 없다. 내 기사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12쪽 참조)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를 향한 구주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 준다.

키스 윌슨

브리검 영 대학교 부교수



- 5 **주님 다시 부활했네** ☺
“주님 이기셨으니 인간 승리 얻었네”
- 6 **신앙의 초상: 밥과 로리 서스턴**
—캄보디아 프놈펜 선교부 ☺
그들이 예상했던 선교 사업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선교 사업을 통해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축복받았다.
- 8 **성역의 원리: 기쁘게 성역을 행함**
참된 기쁨의 근원은 바로 봉사이다.
- 12 **낙담할 때는 나인의 과부를 기억하십시오**
키스 제이 월슨
구주께서 나인의 과부에게 오셨듯이, 우리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바로 그 시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 18 **구주의 구원을 신뢰하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우리가 더욱 의롭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련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 24 **음악: 성스러운 동산에서**
태미 시미스터 로빈슨
구주께서는 나를 위해 사셨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 26 **사랑과 기쁨, 평안에 관한 세 가지 교훈**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
- 32 **후기 성도의 소리** ☺
허리케인 때문에 결혼 계획이 좌절되다; 지상의 삶이 진정 무엇인지에 관한 고찰; 희망을 준 노래; 나의 초대에 응한 사람.
- 36 **자립에서 오는 축복: 사업이 날개를 달다**
조슈아 제이 퍼키
직장을 잃은 어느 변호사가 교회의 자립 수업에서 영감을 얻다.
- 38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절린 머피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신다.
- 40 **십 대와 어린이들을 가르치며: 비극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어린 자녀들이 평안을 느끼도록 돕는 방법.

☺ 짧은 기사



표지
엠마오로 가는 길,
웬디 켈러

섹션

청년 성인

42

선택을 하고, 삶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가? 계시를 받는 것에 관한 이번 달 기사를 읽어 보자.



청소년

50

이번 달 기사를 읽으며, 축복사의 축복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새로운 부활절 전통을 세우도록 영감을 얻으며,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평온을 찾는다.



어린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및 부활,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관해 읽으며 우리가 왜 부활절을 기념하는지를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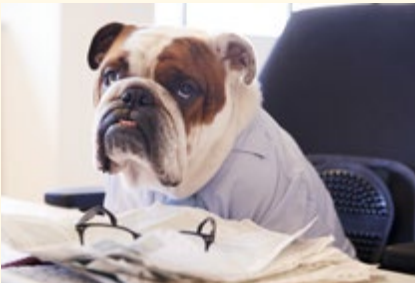
온라인 전용 기사



영적인 근육을 단련함

엑스펜 스탠더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영적인 근육을 끊임없이 단련해야 한다.



진심으로 복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차켈 워들레이

단지 교회 일로 바쁜 것과 복음 안에서 활동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 실제로 다른가?

2019년 4월 호, 제56권 제4호
리아호나 18603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십이사도 정원회: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율렌드, 다이터 예프 우흐도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드슨,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게리 이스티븐스, 데일 지 랜던, 게릿 더블유 쿡, 윌리엄스 소아레스
편집자: 랜디 디 펠코
고문: 브라이언 케이 에슈턴, 켈들 케이 베네트, 베키 크레이븐, 크리스티나 비 프랑크, 도널드 엘 홀스트롬, 래리 에스 캐터,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린 지 로빈슨
관리 책임자: 리처드 아이 히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번
관리 편집자: 애덤 시 윌슨
관리 부편집자: 라이언 카
출판 보조: 케리 브라운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마리아 드니스, 데이비드 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로리 풀러, 개릿 에이치 가프, 존 라이언 켄슨, 살렛 라카발, 마이클 알 모라스, 에릭 비 머독, 셸리 존슨 오데커프, 조슈아 제이 파키, 켄 핀보로우, 리처드 엠 홀나, 민디 셀루, 차켈 워들레이, 마리아 위디슨
편집 인턴: 브리엔나 콜 허버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자넷 앤드류스, 패이 피 앤드러스, 맨디 벤틀리, 시 킴벌 보드, 토머스 차일드, 조슈아 데니스, 데이비드 그린, 콜린 핑클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예말리 치에코 레밍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너호스트
디자인 인턴: 영린 포겔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폴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책임자: 제인 앤 피터스
제작팀: 글렌 어데어, 줄리 버넷,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닐슨, 데렉 리처드슨
사진 인쇄: 조슈아 드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알 바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3호, 제56권, 제4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9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이호상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종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시모니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9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를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email: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pril 2019 Vol. 43 No. 4,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추가 정보

복음 자료실 앱과 liahona.lds.org에서 여러분은

- 최신 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용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과월 호 기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이야기와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독 신청을 하거나 구독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도구로 학습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아하는 기사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기사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아하는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liahona@ldschurch.org로 질문과 피드백을 보내 주십시오.

신앙을 증진시키는 여러분의 기사를 liahona@ldschurch.org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floor 23

50 E.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주

님 다시 부활했네
기쁨으로 외치세

삼 일간의 영육 깨쳐
죽음 정복하셨네
주님 이기셨으니
인간 승리 얻었네

(“주님 다시 부활했네”, 찬송가, 123장.)

다가오는 부활절에 구주를 기억할 때,
lds.org/go/4195에서 그분의 속죄와
부활을 가능하게 했던 구주의 성품에
관한 아름다운 미술 작품과 사도들의
간증을 볼 수 있다.



밥과 로리 서스턴

캄보디아 프놈펜 선교부에서 봉사함



밥과 로리 서스턴 부부는 함께 봉사한 첫 선교 사업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더라도 의미 있는 성역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레슬리 닐슨, 사진 작가

밥:

어느 날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리더니 천막이 하나 설치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그것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로리:

우리는 대여섯 명의 자녀를 둔 한 엄마가 방금 숨을 거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았고, 아이들은 이제 잠에서 깨어 엄마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 한 명은 그저 흐느껴 울기만 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서, 그 딸이 말했습니다. “제가 장녀예요. 이렇게 동생들이 많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아이를 제 팔로 꼭 감싸 안았습니다.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방금 엄마를 잃은 소녀를 앞에 두고서 말입니다. 저는 영어로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네가 너의 엄마를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을 약속하마. 넌 관찮을 거야. 너는 혼자 남겨지지 않을 거야.”

이와 같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우리는 캄보디아 사람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더 알아보기

lds.org/go/18에서 신앙의 초상을 더 찾아볼 수 있다.



성역의 원리

기쁘게

성역을 행함

사랑을 담은 봉사는 행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다준다.

때로는 인생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일 뿐이라는 기분이 들 때 말이다. 일부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성역을 베푸는 생각이 그저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쁨을 맛보기를 바라시며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니파이후서 2:25) 구주께서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기쁨을 가져오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가르치셨다.

기쁨이란 무엇인가?

기쁨은 “큰 즐거움과 행복감”으로 정의된다.¹ 후기의 선지자들은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찾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는 거의 관계가 없으며 우리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분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십니다.”²



성역은 기쁨을 가져온다

리하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의 영혼은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찼다.(니파이전서 8:12) 그의 첫 번째 바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열매를 나누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성역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와 그들은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때 맺게 되는 열매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데 도움이 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요한복음 15:1~11 참조)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다.(누가복음 15:7; 엘마서 29:9; 교리와 성약 18:16;

50:22 참조) 우리는 반대와 고통을 겪을때조차도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린도후서 7:4; 골로새서 1:11 참조)

구주께서는 이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근원 중 하나가 바로 봉사라는 사실을 완벽한 모범으로 보여 주셨다. 우리가 구주처럼 마음속에 자애와 사랑을 담아 형제 자매들에게 봉사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행복을 초월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진 비 빙엄 자매는 “기꺼운 마음으로 [성역]을 받아들일 때 … 우리는 시온의 백성과 같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여정에서 우리가 도움을 준 사람들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느낄 것”이라고 가르쳤다.³

참된 기쁨의 근원

구주께서는 이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바로 봉사라는 사실을 완벽한 모범으로 보여 주셨다.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성역을 행할 수 있을까?

성역을 더 기쁘게 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여기에 몇 가지 제안이 있다.

1. 성역을 베푸는 목적을 이해한다. 성역을 베푸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노력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해야 한다.(모세서 1:39) 성약의 길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러셀 엠 넬슨 회장의 권유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찾을 수 있다.⁴ (성역의 목적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2019년 1월호 리아호나에 나오는 “성역의 원리: 우리의 성역을 변화시키는 동기”를 참고한다.)
2. 성역을 베풀 때 사람에게 중심을 두고, 이를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종종 이렇게 가르쳤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⁵ 성역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지, 과제가 아니다.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키운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오는 기쁨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3. 성역을 단순화한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큰 일은 작고 단순한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우리가 베푸는 작고 단순한 친절과 봉사는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헌신, 그리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 때마다 얻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⁶

4. 성역을 베푸는 일로 부담을 갖지 않는다. 우리의 책임은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그 개인과 주님 사이의 일이다. 우리의 책임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도록 돕는 것이다.

봉사의 기쁨을 미루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때로 도움이 필요해도 도움 구하기를 주저한다. 따라서 도와주겠다는 제안이야말로 그들이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 역시 정답은 아니다. 성역을 베풀기 전에 허락을 구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녀는 수두를 앓았고, 나중에는 그녀의 아이들까지도 전염되었다. 평소에는 티끌 하나 없는 집이 어수선하고 너저분해졌다. 설거짓감과 빨랫감이 쌓였다.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지던 순간,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저희가 도움 일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상황을 보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돌입했다.

“그들은 어질러진 집을 치우고 깔끔하게 정돈했으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한 식료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일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 했을 때, 그 젊은 어머니는 감사와 사랑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⁷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기쁨의 온기를 느꼈다.

삶에서 기쁨을 계발한다

삶에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감을 더 많이 계발할수록, 성역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이 더 많아진다. 기쁨은 성신을 통해 온다.(갈라디아서 5:22 및 교리와 성약 11:13 참조) 기쁨은 우리가 기도로 구하고 우리 삶으로 초대할 수 있는 것이다.(교리와 성약 136:29 참조) 다음은 우리 삶에서 기쁨을 계발하는 몇 가지 제언이다.

1. 내가 받은 축복을 세어 본다. 인생을 곰곰이 돌이켜 보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일지에 적는다.⁸ 주위에 있는 모든 선한 것에 주목한다.⁹ 기쁨을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나 더 잘 이해할 방법을 적는다. 이번 부활절 절기에 시간을 내어 구주와 더 강한 유대감을 쌓는다.(교리와 성약 101:36 참조)
2. 명상을 한다. 기쁨은 조용한 명상의 순간에 더 쉽게 느껴진다.¹⁰ 무엇이 기쁨을 가져다주는지 주의 깊게 귀 기울인다.(역대상 16:15 참조) 명상을 하기 위해 때로는 미디어를 멀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¹¹
3.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기쁨은 비교하는 순간 사라진다는 옛말이 있다. 바울은 “그들이 자기로써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써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경고했다.(고린도후서 10:12)
4. 개인적인 계시를 구한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만일 내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을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 비밀과 평화로운 것들을 알게 되리니—기쁨을 가져다주는 것,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을 알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42:61)

행하라는 권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성역을 통해 인생에서 더 많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까? ■

이 기사에 나오는 원리들은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할 때 적용해도 되지만 본래는 자신이 지명받은 개인과 가족을 축복하려 노력하는, 형제 및 자매 성역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주

1. “Joy,” en.oxforddictionaries.com
2. 러셀 엠 넬슨, “기쁨과 영적 생존,”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2쪽, 번역 수정.
3. 진 비 빙엄, “구주와 같이 성역을 베풀,”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07쪽.
4. 러셀 엠 넬슨,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리아호나*, 2018년 4월호, 4~7쪽 참조.
5. 토마스 에스 몬슨, “인생 여정에서 기쁨을 찾음,”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86쪽.
6. 엠 러셀 벨라드, “봉사에서 느끼는 기쁨,”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49쪽.
7.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기쁜 마음으로 복을 생활을 합시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123쪽 참조, 번역 수정.
8. 헨리 비 아이어링, “오 기억하고 기억할지이다,”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67쪽 참조.
9. 진 비 빙엄,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이라,”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87쪽 참조.
10.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가장 중요한 것들,”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21쪽 참조.
11. 게리 이 스티븐슨, “영적인 일식,”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46쪽 참조.





낙담할 때는

나인의 과부를

기억하십시오

특히 자신이 잊혔거나 무시받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다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한 과부에게 도움이 필요했던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오셨으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살렘

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가 있다. 우리 일상은 다소 지루하고 단조로우며,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직접 개입하신 특별한 경우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살면서 스스로가 너무나 미약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힐 때마다 나는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신약전서의 한 여인을 떠올리곤 한다. 이

여성은 경전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으며, 그저 그녀가 살던 마을의 이름과 결혼 여부로만 알려져 있다.

그녀는 나인의 과부인데, 복음서의 저자 중 누가만이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했다. 나에게 그녀는 개개인에 집중하는 구주의 성역의 본질과 주님께서 당신이 속한 사회에서 좌절감에 빠진 평범한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를 보여 주는 매개체이다. 이 기사는 과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대해 염려하시는가 하는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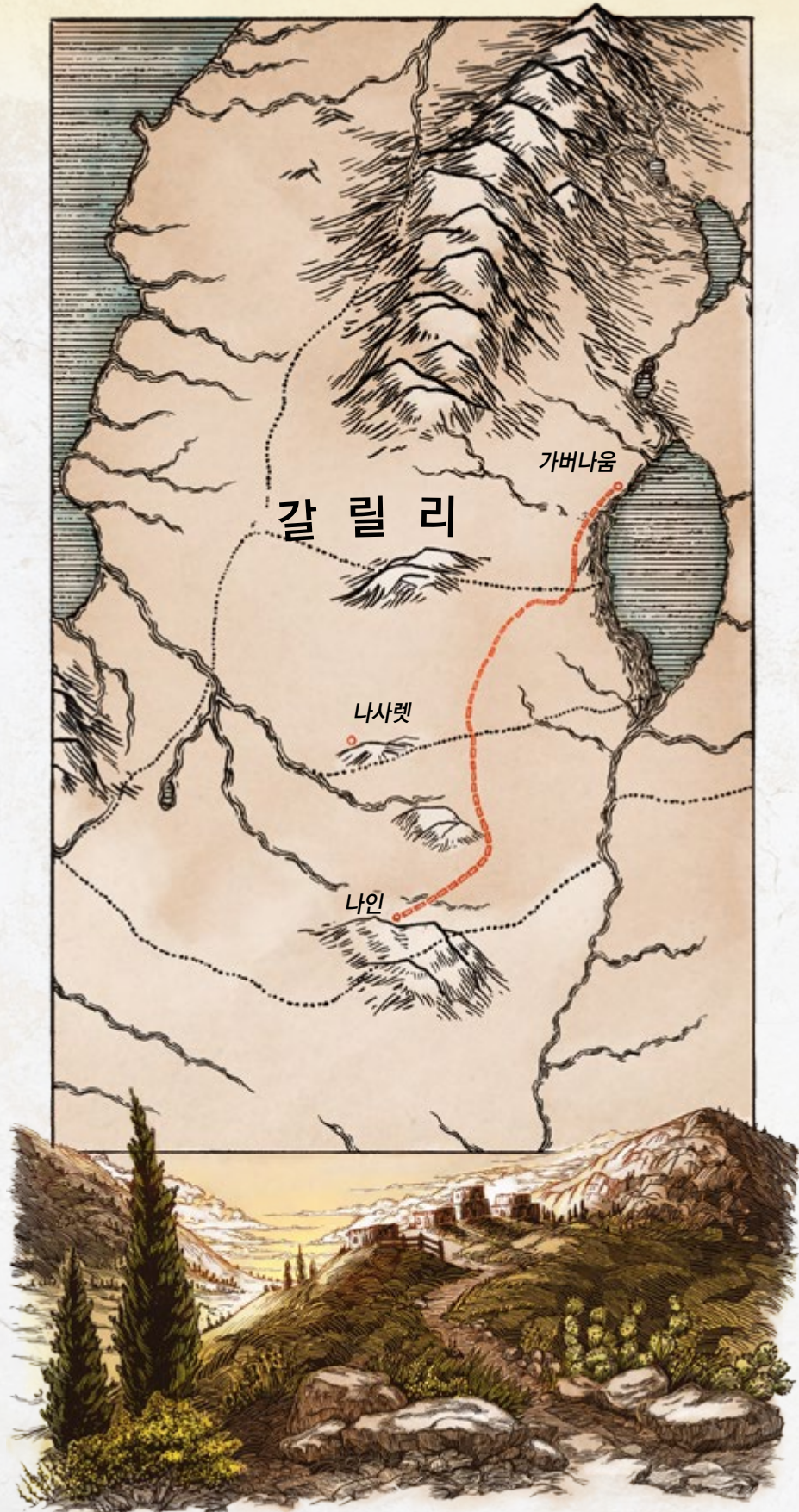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기적을 짧게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서는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한 죽은 청년을 기적으로 다시 살려 내셨다. 하지만 이 기적의 배경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다른 기적도 그렇지만, 특히 이 경우는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된 배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브리검 영 대학교 예루살렘 센터에서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기적에서 개인적으로 통찰한 내용을 전하고자 한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 나인은 작은 농촌 마을이었고, 이스라엘 골짜기의 동편을 나타내는 모레산과 맞닿아 있었다. 마을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길에서 떨어져 있었고, 그곳으로 통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 마을은 작고 비교적 가난했으며, 지금까지도 그렇다. 이 마을의 역사를 살펴보면 겨우 34가구와 189명만이 이 마을에 보급자리를 꾸렸던 시기도 있었다.¹ 현재는 약 1,500명이 이 마을에 살고 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이 사건 전날에 가버나움에 계셨으며, 백부장의 종을 낮게 하셨음을 언급하며 서두를 댈다.(누가복음 7:1~10 참조) “그다음 날”(11절; 강조체 추가; 한국어 개역개정판에는 “그 후에”라고 번역되어 있음—옳긴이), 구주께서는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이라고 불리는 도시로 들어가셨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 가버나움은 해수면 183미터 아래에 있는 갈릴리해의 북쪽 해안에 있다. 그에 비해 나인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48킬로미터 떨어진 해발고도 213미터 지점에 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면 힘든 경사길을 올라가야 한다.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나인으로 걸어서 가려면 최소한 하루 혹은 이틀은 걸렸을 것이다. 최근에 BYU 예루살렘 센터의 젊은 학생들이 포장도로로 걸어갔을 때는 10시간이 걸렸다. 즉, “그다음 날”의 장례를 저지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아주 일찍 일어나셨거나 밤에도 걸으셔야 했을 것이다.²

그리스도께서 힘들게 그 길을 걸어 마을에 도착했을 때, 20대로³ 보이는 한 청년이 장례용 평판 위에 실려 가고 있었다. 누가는 이 청년이 과부의 외아들이었다고 말했는데, 일부 학자들도 이 기록의 그리스어 사본을 두고 그녀에게 다른 자손이 없었다고 해석한다.⁴ 많은 수의 마을 주민들이 이 불운하고도 비극적인 가정사를 겪은 과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물론 아들이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비극이겠지만, 특히 이 과부에겐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자. 상속자 없이 과부가 된다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과연 어떤 의미였겠는가? 구약 시대의 문화에서는 남편이 고령이 되기 전에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내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라 믿었다. 즉, 일부 사람들은 남편을 잃은 이 과부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룻기에서 나오미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자, 그녀는 “결국 주님이 나를 대적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이라고(룻기 1:21, 국제 표준판) 한탄했다.⁵

나인의 이 과부는 영적 및 정서적 고통뿐 아니라 재정적 파산도 겪고 있었는데, 이제 굶주림까지 더해진 것이다.⁶ 당시에는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 가족에게서 재정적인 보호를 받았다. 만약 남편이 사망하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아들이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가진 외아들이 죽었으니, 그녀는 이제 재정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것이었다. 만약 아들이 20대였다면, 이 여인은 중년이었을 것이다. 작고 외딴 농촌 마을에서 살았던 이 여인은 이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극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아들의 시신을 매장지로 옮기던 바로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과 마주치셨고, 그분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누가복음 7:13) 사실 여기에서 누가는





매우 절제된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지극히 절망적인 상황을 감지할 수 있으셨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져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했느냐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지난밤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왜 자신을 계속 살려 두시는지 따져 물었을 수도 있다. 또는 곧 마주해야 할 외로움에 겁에 질려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녀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구주께서 즉시 가버나움을 떠나셨다는 사실은 안다. 아들의 시신이 땅에 묻히기 직전에 장례 행렬을 저지하기 위해서 구주께서는 밤새 걸으셔야 했을지 모른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장례 행렬을 뒤따라가는 그 여인을 보셨을 때 실로 예수님은 큰 연민을 느끼셨다. 하지만 이 연민은 그분이 '나타나' 장례 행렬을 막아 서기 훨씬 이전에 경험하신 감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주님은 그 여인이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때에 그곳에 도착하셨다.

다음으로, 예수께서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셨다.(13절) 의례상으로 불결하게 여겨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며 그분이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리고 예수께서 명하셨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14~15절) 슬픔이 진정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함께 경험하며 마을 주민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당연히 놀라움에 휩싸였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였다.(16절) 하지만 이 기적은 절망에 빠진 한 명의 영혼을 구하는 것에 관한 일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이 여인에게 무언가가 대단히 나쁜 일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셨다. 그녀의 상황은 주님의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이었다. 정확한 시점에 도착하기 위해 오랫동안 길을 걸으셔야 했어도 말이다. 주님은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을 아셨기에 서둘러 오셨다.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은 다음과 같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말씀했다. "어느 날 우리의 삶에서 우연으로 보였던 것들을 돌아볼 때,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⁷

영감 어린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잊힌, 절망에 빠진 이 과부를 아셨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게 해 준다. 특히 자신이 잊혔거나 무시받는다 고 느낄 때 우리는 다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한 과부에게 도움이 필요했던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오셨으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구주의 교훈에서 추가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주변에 있는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때로 낙심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인 자매'에 관해, 그리고 주님께서 그녀의 낙심과 커다란 개인적인 위기 상황을 정확히 아셨던 것에 관해 말해 준다면, 그들의 밤을 낮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스펜서 더블유 킴볼(1895~1985) 회장의 다음과 같은 심금을 울리는 통찰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러나 보통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십니다."⁸

나는 나인의 과부에게 베푸신 성역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베푸신 기적 중 가장 따뜻하고 연민 어린 기적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께 중요하며, 그분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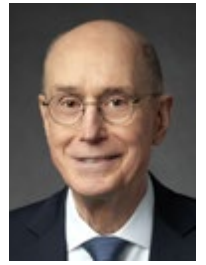
주

1. See E. Mills, *Census of Palestine 1931: Population of Villages, Towns, and Administrative Areas* (1932), 75.
2. See S. Kent Brown, *The Testimony of Luke* (2015), 364.
3. See Brown, *The Testimony of Luke*, 365.
4. See Brown, *The Testimony of Luke*, 365.
5. In Isaiah 54:4, the Lord tells the widow Israel that she will "no longer remember the disgrace of [her] abandonment" (New English Translation).
6. See Brown, *The Testimony of Luke*, 365.
7. 토마스 에스 몬슨, 조셉 비 위스틴이 인용함, "인생의 여정에서 배운 교훈들",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38쪽.
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킴볼*(2006), 82쪽.



[lds.org/go/041917](https://www.lds.org/go/041917)에서 성경 비디오 "나인의 과부"를 볼 수 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구주의 구원을 신뢰하십시오

속죄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주께서는 시련에 빠진 우리를 굳건히 하고 시련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사 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앞에 놓인 길은 슬프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에 대한 지식과 간증이 없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의심 많은 두 제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누가는 그들의 대답을 다음과 같이 전해 줍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누가복음 24:19~21)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는 지식과 간증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사망의 줄을 끊으”셨습니다.(모사이야서 15:23) 바로 그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고린도전서 15:20) 바로 그분께서 우리가 “오랫동안 사랑했으나 잠시 잃어버린” 이들과 우리를 영원히 묶어 주는 성전 성약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¹

이 부활절 절기를 맞아, 몇 년 전에 제가 구주의 구원 권능에 대해 전했던 영적 말씀의 일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강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를 읽으시며 강화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구주는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

어떤 이들의 삶은 일찍 끝이 납니다만, 우리 모두의 삶은 결국에는 다 그렇게 끝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을 겪음으로써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한 남성을 만났는데, 그의 아내가 세상을 등진 이후로 저는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명절을 맞아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운 사교 모임 자리에서, 그는 웃음을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의 죽음을 염두에 두며 매우 조심스럽게 “어떻게 지내십니까?”라는 일상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더니, 이내 눈가가 축축해지며 진심이 묻어나는 대답을 나직이 했습니다. “잘 지내지요. 하지만 정말 힘이

드네요.”

여러분 중 대다수가 알다시피, 또 언젠가는 우리 모두 깨우치게 되겠지만, 삶은 실제로 대단히 힘듭니다. 그 시험의 최고 난도는 우리의 일부를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슬픔과 외로움, 상실감에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내야 하는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슬픔은 곧 만성 통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나 부당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속죄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주께서는 우리를 시련으로부터 구해 주실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경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영의 인도만으로 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몸소 체험하여 아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또 보라, 그는 우리 선조들의 땅인 예루살렘에서 마리아에게서 나시리니, 그는 처녀로서, 귀하고 택함을 받은 그릇이라, 성신의 권능으로 덮으심을 입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엘마서 7:10~12)

여러분 주위의 선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 슬픔을 이해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슬픔을 단순히 이해하거나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만이 느끼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슬픔까지도 느끼십니다. 또한 그분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성신을 초대한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축복하도록 성신을 초대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좋을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기도일 테고, 때로는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 위로해 주는 일일 겁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한 한 여성을 알고 있는데, 그녀는 심신을 쇠약하게 하는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과부를 방문하라는 영감을 받았습시다.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충실한 제자에게 영감을 주시어 다른 이에게 다가가게 하고,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 하셨음을 확신합니다.

구주께서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도 슬픔에 빠진 사람 각각에게 개인적으로 맞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주께서는 영의 인도로 우리의 슬픔을 아실 수도 있었지만 몸소 체험하여 아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구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슬퍼하는 당사자와 그 주변 사람들을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도우실 수 있고, 또 그러한 방법으로 도우시리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슬픔에서 건져 내실 때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이 그분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신앙 깊은 겸손함이 가져오는 힘을 보여 주는 훌륭한 본보기는 욥의 생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욥기 1:20~22 참조)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욥이 그러했듯이 그들은 구주의 부활의 권능을 믿는 변치 않는 신앙을 갖는다는 점입니다.(욥기 19:26)

우리는 모두 부활할 것이며, 세상을 떠난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의 재회는 어떤 비현실적인 방식이 아니라 죽지도, 나이 들지도, 쇠약해지지도 않는 육신을 입은 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활 후 그분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구주께서는 슬픔에 잠긴 사도들뿐 아니라 언젠가는 슬픔에 빠지게 될 우리 모두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도들과 우리를 다음과 같이 위로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누가복음 24:36, 39)

주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슬픔에서 구원해 주시는 권능에 우리가 다가가도록 영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와 그분의 복음, 그분 교회의 회복,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모두 성신을 불러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성신입니다. 또한 영이 가져다주는 영감을 통해 우리는 부활에 대한 간증과 아울러 다가올 영광스런 재회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지닐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 품 안에 안게 될 누군가의 모비를 내려다보면서 저는 그와 같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덕분에, 저는 슬픔에서 벗어난 동시에 행복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녀가 조그마한 아이에서 원숙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더라면, 또 다른 종류의 시련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육체적 및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충실히 남기 위한 시험도 받았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놀라운 창조물일지라도, 그 기능을 다하도록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시험하는 도전입니다. 모든 사람은 질병과 노화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약한 자여 겸손하라”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권능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권능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가져오는 시련에서 구원되는 방법과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 구원이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이 연장되는 방법으로 오는 것만은 아니듯이, 시련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 시련을 없애는 방식으로 오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속죄의 권능이 작용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만큼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나서야 주님께서 위안을 주시는 경우도

여러분은 구주께서 슬퍼하는 당사자와 그 주변 사람들을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도우시리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토머스 비 마쉬는 삶의 역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권능을 받기 위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험난한 시련을 겪고 있었고, 주께서는 그의 시련이 이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가 받은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저 스스로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예 대한 응답을 내게 주리라.”(교리와 성약 112:10)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좀 더 의롭게 됨으로써 구원으로 인도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구원으로 향하는 길에서, 우리가 고난을 헤쳐 나가는 동안 주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성결함에 이르기까지 이끄실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원망하거나 낙담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손을 잡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지녀야 하는 겸손은 바로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 되리라고 믿는 신앙에서 비롯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겸손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겿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견딜 수 없는, 심지어 형언할 수도 없는 고난을 우리를 대신해서 겪으시던 중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는지 읽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42)

그분은 위대한 엘로힘이신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신뢰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전능하시고 무한히 친절하심을 알았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말로써 구원의 권능으로 자신을 도와주십사 간구하셨습니다.

용기를 내고 위로를 받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시련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은 시련을 없애는 대신 아들이 행하게 된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구절에 나온 대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도움을 알기에 영원토록

용기를 내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누가복음 22:43~46)

구주께서는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대신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극복할 만큼의 위안을 받으셨습니다.

스스로 시험받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그분의 명은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따르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사망과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한 신앙을 지니고 겸손하게 기도할 것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마가복음에 나온 대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명을 따를 수 있습니다.(마가복음 14:42)

여기에는 여러분이 삶에서 육체적 및 영적인 시험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조언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가되, 위기가 덮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구원해 주시기를, 가급적 일찍 그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며 이를 엄숙히 간증합니다. 그분의 행복의 계획은 완전하며, 진정한 행복을 위한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에 대해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사망과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따를 때 성신이 다가와 우리를 위로하고 깨끗하게 해 줄 수 있음을 압니다. 살면서 겪는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시기에 그분의 위로와 도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

2008년 1월 15일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전한 “The Power of Deliverance”에서 발췌함.

주

1. “어둠에 싸인 밤에,” 찬송가, 79장.



셋째아내 그림의 일부: 제이 쿠퍼 리처즈, 그림 나뭇가지: GETTY IMAGES

성스러운 동산에서

사려깊게 ♩ = 60-68

작사 및 작곡: 테미 시미스터 로빈슨

1. 성 스 린 동 산 에 서 나 구 하 신 그 은 해
 2. 당 신 름 상 처 보 았 네 귀 한 은 사 의 상 징
 3. 잔 을 입 에 대 고 내 내 게 주 신 상 한 몸

겻 세 마 네 동 산 위 구 주 께 서 나 위 해
 만 인 위 한 고 통 중 구 주 께 서 나 위 해
 경 건 하 계 생 각 해 구 주 께 서 나 위 해

나 위 해 기 도 했 네 내 상 한 맘 받 소 서
 나 위 해 기 도 했 네 내 상 한 맘 받 소 서
 당 위 해 기 도 했 네 내 상 한 맘 받 소 서

당 신 뜻 따 르 리 니 겻 세 마 네 동 산 위
 당 신 뜻 따 르 리 니 겻 세 마 네 동 산 위
 당 신 뜻 따 르 리 니 겻 세 마 네 동 산 위

구 주 께 서 나 위 해 나 위 해 기 도 했 네
 구 주 께 서 나 위 해 나 위 해 기 도 했 네
 당 위 해 살 리 라 당 위 해 살 리 라

© 2003 Tammy Simister Robinson. 판권 소유.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음.
 본 문구는 모든 사본에 포함되어야 함.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

사랑과 기쁨, 평안에 관한 세 가지 교훈

이 세 단계를 따른다면 삶에서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으며 성령의 열매를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제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 '미래'를 살면서 저는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온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이러한 교훈들을 배우는 데 걸렸던 것만큼 긴 시간이 걸리지 않기를 바라며 제가 배운 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더 큰 기쁨을 찾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승영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행복과 평안과 성신을 구하십시오

저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지 약 6개월이 지난 대학 2학년 때, 제 아내 멜린다를 만났습니다. 멜린다를 만나자마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멜린다는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내는 5년이 지나서야



작은 일들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저와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

다. 그 5년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할 수 있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도 알고, 영도 제게 그렇게 하도록 거듭 권유했으나, 그 목표는 까마득하게만 보였습니다.

제가 졸업한 직후, 뮐린다는 선교 사업을 결심했습니다. 아마 저한테서 벗어나려는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저는 때로 비참했습니다. 그녀가 없다는 사실에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제 삶에 성신을 초대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매서운 추위 속에 맞았던 어느 일요일의 이른 아침, 저는 차를 몰고 교회 모임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사실 지금 엄청나게 비참해야 하는 게 맞지.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한 기분이 든다고!’

분명 힘든 시련을 겪고 있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저는 제 삶에 영을 초대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기쁨과 평화로움을 느꼈고, 오래 참을 수 있었기에 시련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결혼 생활에서 누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큰 집이나 멋진 자동차, 신상 의류, 출세, 또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따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느낌은 영이 가져다주는 것이므로, 그런 느낌을 우리의 현세적인 상황과 연관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행복할 것이라거나 현세적 상황이 우리의 행복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님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쓴 것을 맛보지 않으면 단 것을 알 수 없습니다.(교리와 성약 29:39; 또한 모세서 6:55 참조)

우리는 때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더욱이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 상태와 정서적 상태 때문에 큰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영을 느끼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영을 동반하려 노력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이 참됨을 간증합니다. 뮐린다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이러한 경험을 한 이후로, 저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일들이 풀려 나가리라 믿고 받아들일 것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 삶에 영을 불러오는 일들을 하면, 보통은 행복해진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야곱서 3:2 참조)¹

2. 위조품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기만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위조된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달리 설득하려고 애쓰지만, 구주께서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가르치십니다.(제3니파이 14:18) 사탄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느낄 수 없습니다.(갈라디아서 5:22~23) 사탄은 그보다도 오히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니파이후서 2:27 참조)

그렇다면 사탄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중 하나였던 제 친구가 그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제 친구는 선교사로 봉사했는데, 매우 뛰어난 선교사였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에 영을 초대하고 선교 사업 중에 자신을 굳건하게 해 주었던 작은 일들을 모두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기만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위조된 대안을
제시합니다.
구주께서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제3니파이 14:18)

그러다가 그녀는 친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귀환 선교사인 그 친구들은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즐거워 보였으며, “재미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방식은 그녀가 하는 만큼의 큰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선교 사업 동안 자신에게 영적인 힘을 가져다준 작은 일들을 서서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간증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으니 난 괜찮다고 생각했어. 난 정상 궤도에 있는 거라고.” 그렇지만, 그녀는 “난 영적으로는 저활동이었어”라고 말했습니다.²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면서, 하나의 잘못된 선택은 또 다른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곧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선택이 결국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고, 그녀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친구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회개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장 훌륭한 사람조차도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에 더하여,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속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 줍니다. 우리는 삶에 영을 초대하는 작은 일들을 행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가 이제 행복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활동적으로 지내고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 드립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다양합니다. 그중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것보다 세상의 것을 우선순위에 놓도록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지금은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피곤해서 _____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지 주목해 보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빈칸을 다음 말로 채워 보십시오. 성전에 참석한다, 성역을 베푼다, 경전을 공부하고 숙고한다, 부름을 수행한다, 기도를 드린다.

너무 바쁘다고 느끼는 한 가지 이유는 사탄이 우리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 자동차에 있는 라디오, 집에 있는 텔레비전 및 무수히 많은 것을 이용해 거의 모든 시간 동안

우리의 주의를 돌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실제보다 더 바쁘다고 느낍니다.

이런 산만함의 또 다른 결과는 우리가 점점 더 깊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특히 경전을 숙고할 때 더 큰 개종과 계시로 인도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또 다른 속임수는 외적 행동이 내적 동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동기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으면,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고역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느끼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일도 그만두게 할 수 있음을 압니다.

사탄은 또한 기쁨과 행복이란 평탄하게 살거나 늘 재밌거지만 있으면 오는 것이라고 믿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기쁨과 행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이겨 내야 할 무언가가 없다면 기쁨이나 행복도 없습니다.(니파이후서 2:11, 23 참조)



제가 언급할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는 일시적인 쾌락을 주는 부도덕한 행실이 진짜 행복이라고 우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적어도 그 순간에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1)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리라는 것과, (2) 또 그러한 느낌이나 감정이 우리의 소망을 저해할 거라는 것과 (3) 우리가 그러한 느낌이나 감정을 꽤 괜찮은 대용품처럼 느끼리라는 것을 압니다.

가령, 사탄은 사랑 대신 정욕을 찾으려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기쁨 대신 흥분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보다는 우리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를 이타적이고, 끊임없이 순종하며, 영적으로 잘 집중하게 하는 대신에 독선적이고, 열광적이며, 이득을 노리며 약삭빠르게 행동하게 합니다. 그의 유혹으로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고 그다음에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작은 일들을 행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영을 초대하고, 우리가 속는 것을 막아 주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영생하게 될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보통 작은 일들입니다. 구주께서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러한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리와 성약 64:33)

작은 일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다음 구절에서 구주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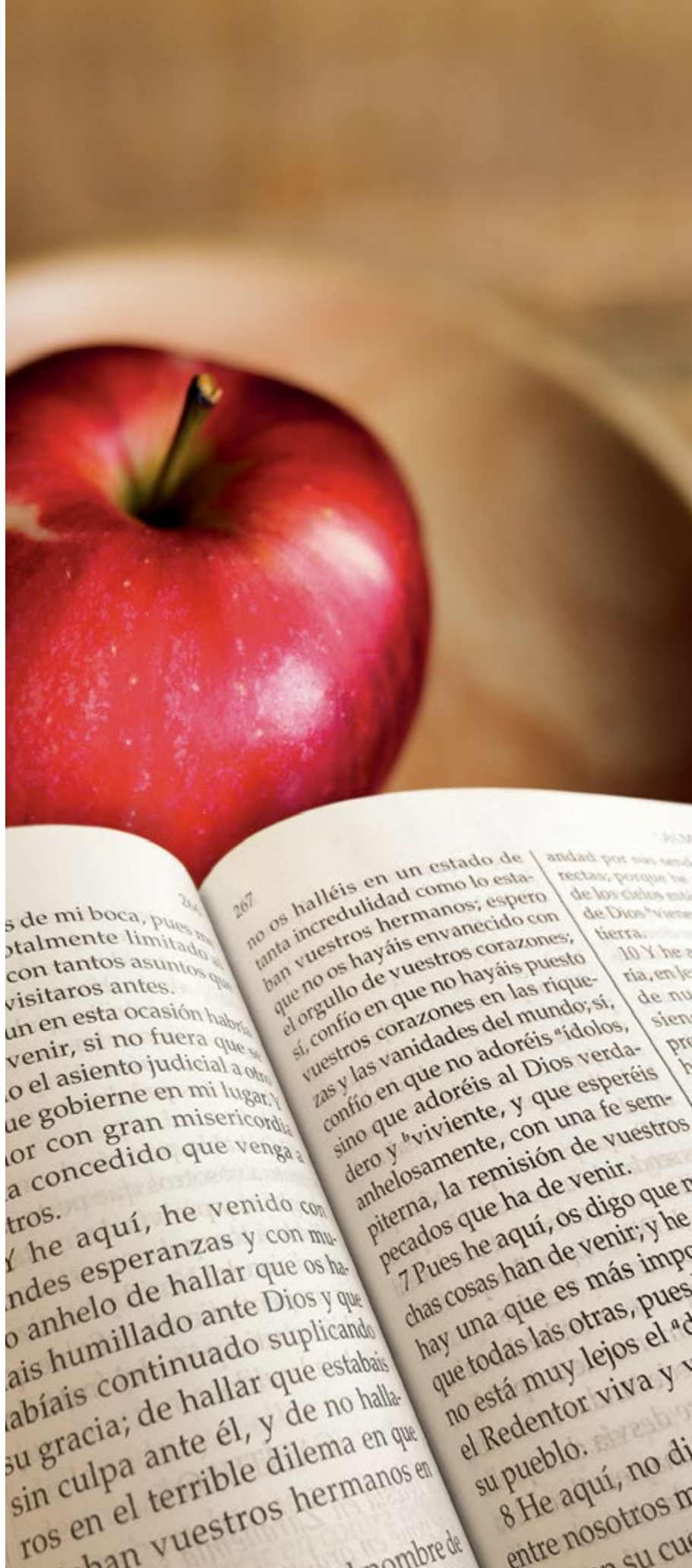
요구하니.”(교리와 성약 64:34) 구주께서는 왜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작은 일들과 관련지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작은 일들을 계속해서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며,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힐라맨서 3:35 참조)

정결하고 성결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본성은 조금씩 변화되어 점점 더 구주를 닮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성신의 속삭임을 더 잘 받아들일게 되어 쉽게 속지 않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는 집에서 제게 세미나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해의 주제가 몰몬경이었기에 아버지는 저와 함께 몰몬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배운 것을 토론하기로 하셨습니다. 몰몬경을 읽으면서 아버지는 읽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질문을 하셨고,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구주에 관해 배우며 그분이 정말로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셨고 그분의 속죄 덕분에 정말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경전을 읽었던 그 시간이 제 경전 공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더 중요한 것은 제 열망과 동기와 행동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으며, 저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속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자주 회개했습니다. 대학 1학년이 끝나 갈 무렵에 저는 매일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몰몬경을 매일 읽고 배운 바를 생활에 적용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³ 그래서 저는 제가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에 더하여 몰몬경을 조금이라도 읽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저는 진정으로 경전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경전을 읽으면서 성신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제 질문과 구도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경전을 탐구하면서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매일 경전의 말씀을 흡족히 취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함으로써 성신을 제 삶에 초대했기 때문에 성신의 인도를 받아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학교에서, 그리고 이후에는 직장에서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결정을 내리기도 더 쉬워졌습니다. 저는 더 많이 기도했고 부름도 더욱 부지런히 수행했습니다. 매일 경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한다고 해서 제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삶은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2005년 8월에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연말까지 몰몬경을 읽고 또 읽으라는 과제를 주셨습니다.⁴ 어쨌든 저는 매일 몰몬경을 읽고 있었고, 그때 벌써 이더서나 모로나이서를 읽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두 주 후에 몰몬경 읽기를 마치면서 힝클리 회장님이 내 주신 과제를 완수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실한 가정 복음 교사가 우리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힝클리 회장님의 권유를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다행히 힝클리 회장님이 과제를 주시기 전에 몰몬경을 읽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약간은 독선적인 태도로 그 과제를 다 마쳤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 가정 복음 교사는 관점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제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 주었을 때, 영이 제 가정 복음 교사가

매일 경전을,
특히
몰몬경의
말씀을
흡족히
취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영이
초대되리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옳다고 속삭였습니다.

연말까지 몰몬경 읽기를 다시 끝내려면 이제 매일 두 장씩을 읽어야 했습니다. 제가 몰몬경을 읽는 양을 더 많이 늘리자, 제 삶에 더 큰 권능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기뻐고, 사물을 보는 관점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더 자주 회개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그들을 구조하고 싶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에 영향을 덜 받게 되었으며, 구주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11월에 저는 와드의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힝클리 회장님이 주신 과제를 완수하면서 저는 그 부름에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직장이나 교회에서 더 바빠질수록 경전을, 특히 몰몬경을 더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경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한다면, 여러분도 삶에서 똑같은 축복과 권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경전을, 특히 몰몬경의 말씀을 흡족히 취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영이 초대되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매일 기도하고, 더 자주 회개하며, 매주 교회에 참석하여 성찬을 취하는 것이 더 쉬워지리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작은 일들을 행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과 기쁨,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음을 간증합니다. 모든 선한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옵니다.(모로나이서 7:22, 24 참조) ■

2017년 12월 5일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전한 "Happiness, Deceit, and Small Things"에서 발췌함.

주

1.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확고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흡족히 취할 수 있다.
2. 저자 소유의 인터뷰 노트와 기록.
3. 에즈라 테프트 벤슨, "거룩한 책임",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84~86쪽 참조; 또한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4~7쪽 참조.
4. 고든 비 힝클리, "제일회장단 메시지: 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리야호나, 2005년 8월호, 2~6쪽 참조.

허리케인도 우리를 막진 못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나는 댄스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 춤추던 곳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한 젊은 남자가 전화를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우리는 둘 다 귀환 선교사라는 것과, 여러 가지 비슷한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우리는 약혼을 했다. 우리의 꿈은 워싱턴 D.C. 성전이 2018년 3월에 보수 공사로 문을 닫기 전에 그곳에서 인봉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내린 후, 시련이 찾아왔다. 첫 번째, 나는 실직을 했다. 성전까지 갈 여행 경비를 모을 길도 없어졌다. 다음으로, 우리 결혼식 날 직전에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할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었다.

허리케인 마리아가 우리 나라를

강타했고, 아름다운 우리 섬은 초토화되었다.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전기가 끊겼다. 물과 음식 및 기타 기본적인 물품을 찾기도 어려웠다. 우리는 결혼 피로연에서 쓰려고 했던 모든 것을 잃었다. 결혼 피로연은 취소해야 했다. 결혼식도 취소해야 할 것만 같았다. 해외 여행도 제한되었다. 그게 언제 해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나는 낙심했다. 내 마음은 온통 의심과 혼란뿐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약혼자와 함께 우리의 상황에 관해 이야기했다. 성전에 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 결혼 피로연이나 결혼 예복도 없겠지만, 영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인봉을 받는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했다.

일단 푸에르토리코에서 비행이 재개되자 우리는 새로 출국 계획을

세우고 인봉 날짜도 다시 잡았다. 허리케인이 발생한 후 몇 주 동안이나 전화가 불통이었는데, 한 친구의 휴대 전화가 작동했다. 그 친구의 도움으로 우리는 성전에 연락을 취했다. 우리는 인봉을 위해 모든 것을 다시 조정할 수 있었다! 성전으로 떠나기 몇 주 전에 가족과 친구들은 신발과 의복을 기부해주었고, 결혼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얻도록 도와주었다.

마침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모든 걱정을 뒤로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미래로 향했다. 나는 우리를 인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한 모든 것이 괜찮으리라고 안심시켜 주는 그분의 손길을 진심으로 느꼈다. 현재 우리는 귀여운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았으며 우리 가족은 영원을 위해 인봉되었다. ■

코라이마 산티아고 데 헤수스,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허리케인 마리아가 지나간 후 결혼식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았다.





“이게 바로 그것이란다!”

어느 겨울 밤, 감독이었던 나는 여러 사람을 접견하고 늦게서야 집에 도착했다. 정말 피곤했다. 몇 주 동안 업무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데다가 가족과 교회의 책임까지 감당하려니 내 능력의 한계치 이상을 소진한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려면 그날 밤 차를 수리해야 했다. 작업복을 갈아입으며, 나는 감독에서 정비공이 되었다. 나는 차가운 차고 바닥에 누워 차 밑에서 수리를 시작했다. 온종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는 왜 또 이렇게 춥고 피곤한 상태로 이 고생을 해야 하는 걸까? 나는 인내심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께 푸념을 하며 기도로 호소하기 시작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아빠와 남편과 감독이 되기 위해, 그리고 계명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다면 더 잘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빨리 이걸 마치고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갑자기 세 단어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마음속에 떠올랐다. “이게 바로

그것이란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나는 바로 주님께 여쭙었다.

다시 그 말이 떠올랐다. “이게 바로 그것이란다!”

세 번째로 “이게 바로 그것이란다!”라는 말이 떠올랐을 때에야 이해력이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 이 단어들이 내 영에 가르침을 전해 주었다. “그것”은 지상의 삶을 말하는 것이었다. 즉,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성장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영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너는 지상 생활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일어났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시련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돌이키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시련을 경험할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복을 받는다.

그 추운 밤, 우리 집 차고의 콘크리트

차를 수리하는 동안
분명한 메시지가
마음속에 떠올랐다.

바닥에서 마음속에 떠오른 그 세 단어는 35년이 넘도록 나를 축복해 주었다. 나는 쓸데없는 시련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나는 시련을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는 기회로 여긴다. ■

리처드 제이 앤더슨, 미국 유타주

노래하는 아빠의 얼굴

나는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한 지 겨우 4개월 만 만에 심각한 발작을 일으켰고, 뒤이어 간질 진단을 받았다. 나는 그 후로 몇 달간 병원에 가서 수없이 많은 검사를 받았고,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면서는 힘든 부작용도 겪었다.

그전까지 나는 선교 사업에 너무도 열중하고 있던 터라 가족에 대한 별다른 향수를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발작을 일으킨 후부터는 마음이 약해졌다. 부모님이 보고 싶었고, 주변에 훌륭하게 나를 돌봐 주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외로움을 느꼈다. 집에 가고 싶은 것은 아니었지만 평안을 느끼고 싶었다.

나는 선교부 회장님의 허락을 받고 내 약물치료에 관해 부모님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에 아버지는 태버나클 합창단에 소속되어 노래를

부르는 평생의 꿈을 막 이루셨을 때인데, 바로 다음 날 시작될 연차 대회에서 나를 위해 온 마음을 담아 노래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게 절실히 필요했던 평안을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예전에 연차 대회 동안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다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대회가 시작되었을 때, 합창단은 “사랑하는 자녀들아”(찬송가, 40장)를 불렀다. 합창단이 노래를 시작한 지 일 분도 채 되지 않아서 텔레비전 화면에 아빠가 보였다. 카메라는 꽤 오랫동안 아빠의 얼굴을 확대해서 잡았다.

커다란 평안이 나를 감싸 주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분은 내가 그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나는 그분이 가까이 계시고 나를 아신다는 단순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더 나아가 우리 가족과 내 동반자들, 그리고 선교부 회장님의 사랑을 느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느끼는 대신 이제 주님께 더 가까워지도록 성장할 기회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지만 건강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나는 결국 일찍 귀환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 확신은 내가 더 많은 시련을 겪을 때 나와 함께했고, 힘든 시간에도 내게 희망을 주었다. 다른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빠의 모습을 본 일은 필요할 때 제때 일어난 작은 기적이었음을 나는 안다. ■

마리아 오카, 미국 캘리포니아주

텔레비전
화면에서
아빠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히카르두에게 준 초대장

교회 활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늘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 10명을 활동에 초대한다. 그렇게 한 지 수년이 되었다. 나는 초대장을 만들어 하얀 봉투에 한 장씩 넣고 영이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나서 초대장을 나누어 준다. 10명이 모두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단 한 명이라도 참석하면 성공했다는 느낌이 든다.

몇 년 전, 나는 부부들을 위한 노년의 모임 초대장 10장을 준비했다. 직장 동료 9명에게 나누어 준 후 한 장이 남았는데,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몇 분 후에 영업 담당자인 히카르두가 내 책상 옆을 지나갔다. 그를 초대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교회 행사에 참석해 보라는 다른 동료의 초대를 그가 거절했던 적이 있었기에 아무래도 그는 별 관심을 보일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히카르두가 나가면서 내 책상 옆을 한 번 더 지나갈 때, 그러한 느낌이 또다시 들었다. 그러나 히카르두가 너무 빨리 나가 버리는 바람에 이야기할 기회를 놓쳐 버렸다. 나는 만약 히카르두에게 초대장을 주어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가 되돌아오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자, 히카르두가 내게 질문이 있다며 다가왔다. 필요한 대답을 한 후, 나는 이렇게 말했다. “히카르두, 우리 교회에서 부부 활동 모임을 하거든요. 매일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춤도 출 거예요. 제가 초대하면 오시겠어요?”

“물론이죠!” 히카르두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모임에 올 거라는 확신은 들지



직장 동료 9명에게 초대장을 나누어 준 후 한 장이 남았는데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않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뭐, 내가 할 일은 한 거니까.’

활동이 열린던 날, 아내와 나는 도착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찌감치 모임 장소로 갔다. 그런데 히카르두와 그의 아내 헤지나가 진짜 그곳에 나타났다. 나는 두 사람을 내 아내와 모임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히카르두와 헤지나는 저녁 내내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그들이 일요일에 교회로 와서 교회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히카르두와 헤지나, 그리고 그들의

두 자녀는 교회에 대해 더 알아보았다. 결국, 그들은 교회에 가입했고, 나중에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히카르두가 내게 말하기를, 당시 그와 아내 사이에는 이혼에 대한 말이 오가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때마침 주님께서 그를 내 사무실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히카르두가 내 초대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 나는 모든 이를 초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누가 초대에 응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

마틴 아폴로 코도바, 브라질 파라나

사업이 날개를 달다

조슈아 제이 퍼키
교회 잡지

테디 레예스의 눈 앞에서 문이 닫혔지만, 그가 자립 과정에서 배운 것들 덕분에 곧 다른 문이 열렸다.

새벽 4시,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에 사는 테디 레예스는 이미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있다. 한창 번창하고 있는 사업체를 유지하려면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다. 먼저 토마토와 빵을 썰고, 뒤이어 특제 소스를 만든다.

오전 6시가 되어 직원 두 명이 합세하면 준비 작업에 가속도가 붙는다. 오전 8시까지 그들은 300개의 샌드위치를 만들어 랩으로 개별 포장한 후 봉지에 넣는다. 여섯 명의 직원이 더 출근하면 직원 전체가 판매를 위해 밖으로 나간다.

오전 9시. 직원들을 위해 남겨 둔 서너 개를 제외하고는 샌드위치가 모두 매진된다.

테디의 사업은 날개를 단 듯 번창하고 있다. 그러나 늘 일이 잘 풀렸던 것만은 아니다. 사실 지난 5년간, 변호사였던 그는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꾸준한 일을 찾을 수가 없었다.

테디는 어떻게 고객 상담에서 샌드위치 판매로 방향을 틀게 되었을까?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는 교회의 자립 프로그램 수업에서 배운 원리들을 신중하게 적용했다.



실직

5년 전, 테디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 변호사라는 괜찮은 직업이 있었고, 막 결혼도 했으며, 아내에게 침례를 주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몇 가지 어려움이 생겼고, 직장도 잃었지요.”

그 이후로 4년 간 테디는 취직에 어려움을 겪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지만, 누구도 저를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해 보긴 했는데, 실통치가 않았죠.”

아내인 스테파니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외벌이로는 생활을 감당할 수 없었다. 곧 아기도 태어났다. 그들은 행복했지만, 재정적으로는 점점 더 쪼들렸다. 집을 잃고, 차도 팔고, 저축해 둔 돈마저 다 떨어졌다. 결국 그들은 스테파니 어머니 소유의 자그마한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테디는 포기하지 않았다. 곧 예기치 않은 기회가 찾아왔다.

자립의 힘

그렇게 수년을 고생하며 보낸 테디는 이려고 지낼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에서 하는 자립 과정에 등록하기로 결심했죠. 그 과정은 진작에 들어 알고 있었지만, 늘 나오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혼자 뭔가 해 보는 정도만 가르쳐 주겠거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어요.”

먼저, 테디는 개인 재정 그룹에 등록해 수업을 들었다. 그런 다음에는 창업 및 사업 확장 그룹 과정을 들었다. 그룹 과정은 사업에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 과정을 듣고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배운 내용을 빠짐 없이 실행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곧바로 재정적인 면에서 달라졌어요.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고,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했더니 변화가 생겼어요. 저축을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시작했죠. 모든 원리가 저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창업 및 사업 확장 그룹 과정에서 테디는 자신이 사는 동네의 소비자들에게 유익이 될 잠재적인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면서 영감이 오기 시작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갓 만든 샌드위치를 좋아했으며, 주문 후 바로 만들어 배달까지 해 주는 것도 좋아했다.

테디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식당이 다른 식당과 차별되는 특제 소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만의 샌드위치 특제 소스를 개발했습니다.”

사업 확장

테디는 개업 날 30개의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날 30분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샌드위치를 팔고 있어야 할 사람이 벌써 집에 와서 뒹하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전 그날 팔 샌드위치를 모두 팔았던 거예요!”

그 후 몇 주간, 테디는 인근 지역의 사업장 및 학교와 접촉했다. 많은 사람이 그가 만든 샌드위치를 사고 싶어 했고,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손질 방법을 재빨리 습득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특제 소스 역시 정확히 얼마나 오래 신선도를 유지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는 저녁마다 빵을 주문하고 찾아온다. 토요일이 되면, 더 저렴하면서도 월요일까지 사용해도 괜찮은 채소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한다.

얼마 안 가서 특정 종류의 샌드위치와 특별 행사를 위한 대량 주문도 받게 되었다. 일손이 부족하자 직원도 고용하기 시작했다.

인근 학교 및 사업장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덕에 단골 고객층도 확보했다. 넉 달 만에 그는 직원 8명을 고용했고, 주당 5일간 매일 300개의 샌드위치를 판매했다. 유능한 판매팀 덕분에 학교가 방학을 하는 여름에도 완판 기록을 이어 갔다. 이제 테디는 사업을 확장할 준비가 되었다.

그는 자립 과정 덕분에 샌드위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도록 영감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의 인도와 제가 받은 축복 덕분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매우 굳건한 간증이 생겼습니다.” ■



우리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절린 머피

사랑하는 우리 아들 헤이든은 숨을 쉬지 못해 새파랗게 질린 상태로 태어났다. 아기는 생명이 위태로웠다. 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미동조차 없었다.

의사와 간호사 여럿이 병실을 황급히 오가는 모습에 나는 무언가 한참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남편과 친정 아버지가 헤이든에게 재빨리 신권 축복을 준 후, 아이는 급히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곧이어 아기는 희귀성 심부전증 진단을 받았다. 아기는 며칠 사이에 몇 번이나 심장 수술을 받았다.

신권 축복의 기적적인 권능과 금식 및 기도를 통해, 헤이든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살아남았다. 우리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쁨에 들떴다.

헤이든은 우리의 삶에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우리는 이 아기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예상대로 헤이든의 발육 상태가 더디다는 사실에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아기가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자라게 될 거라고 확신했지만, 육아에 지친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다.

남편과 나는 헤이든의 병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사는 모두 했다. 의사들이 하라는 대로 모두 따랐다. 그러나 진척은 없었다.

지치고 좌절감이 밀려왔다. 하나님 아버지께 헤이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도와 달라고 간청했지만 아무 도움도 찾지 못했다. 헤이든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아기는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우리는 두려웠다. 아이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응답을 구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헤이든에게 편지를 썼다.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헤이든의 삶을 더 편안히 해 주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적었다. 앞으로 헤이든이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여생을 바치겠다는 약속도 했다.

좌절감과 불확실한 상황에 내가 짓눌려 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주었다. “왜죠?” 난 내가 아들을 도우려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그분께서 아시기 때문에 헤이든을 내게 보내셨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아무런 응답도 찾지 못하는 것일까? 새로운 의사를 만나고 새로운 치료를 받을 때마다 왜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걸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헤이든을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나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갑자기 나는 나를 압도하는 사랑의 감정에 휩싸였다.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마음에 떠올랐다. “절린, 네가 나보다 그 아이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대로 굳어 버렸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예전과 같은 좌절감 때문이 아니라 희망과 이해, 사랑에 복받쳐 눈물이 쏟아졌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나의 질문도 바뀌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헤이든을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한다. 헤이든은 자신이 성장하고 배우는데 필요한 것과 기회를 받기에 꼭 알맞은 육신을 입고 이 지상에 온 것이다. 우리 각자가 그렇듯이 그 아이도 자신만의 독특한 능력과 시련을 안고 있다. 나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도 이 지상에서 특별한 사명을 지닌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사랑스런 자녀들임을 알게 되었다.

남편과 나는 계속 응답과 축복을 받고 있다.

그것은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온다. 우리는

헤이든이 지상 생활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될 올바른 책과 치료, 학교, 그리고 교사에게로 인도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헤이든에게 바라는 길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이를 위해 마련하신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헤이든이 자신의 신성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헤이든을 위해 마련하신 삶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훨씬 명확해졌다. 그것은 헤이든이 우리 아들이기 이전에 그분의 아들이라는 점을 이해한 덕분이다. ■

글쓴이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산다.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네가 나보다 그 아이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육신: 귀중한 선물

“어떤 사람들은 대개 잘 알 수 없는 이유로 육체적 한계를 갖고 태어납니다. 신체의 특정 부분이 비정상적인 경우도 있고, 신체의 조절 체계가 균형을 잃어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병이나 죽음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는 은사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육신이 없다면 우리는 총만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성한 숙명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완벽한 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사랑스러운 영들이 연약한 육신에 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는 바로 그러한 도전을 이겨 나가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 위대한 힘을 발전시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충실하고 순종적인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러셀 엠 벨슨 회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87쪽.

비극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녀들은 조만간 가정 가까이에
있든 멀리 떨어져 있든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온통 혼란에 싸여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내면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¹ 다음은 자녀들이 그러한
평안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이다.



안정감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면,
자녀들은 세상이 뒤흔들리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그들에게
굳건함의 본보기가 되어 준다.
문제에 대해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한다. 가능한 한 일상의
흐름을 유지한다. 가정의 밤과
경전 공부, 기도, 그리고 기타
가족이 함께하는 습관적인 일들을
꾸준히 이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들은 삶이 혼란에 빠지더라도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관점을
제공해 주며, 삶은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존중

자녀들의 감정을 존중한다.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느끼는 바를 인정한다.
그들의 근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대화를 강요하는 대신, 그들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알려 준다. 질문이 제기되면
자녀의 나이에 맞게 정직한 대답을
해 준다.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근심에 대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인도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왜 나쁜
일들이 생기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좋은 시기와 힘든 시기는
모두 삶의 일부이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허락하시는데,
때로 사람들은 고통을 초래하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 또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연 현상의
일부로 비극이 일어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곁에 계신다. 아무리 고통스런
경험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도움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우리는 평안을 찾기 위해 그분께로
향할 수 있다.

자녀들이 지닌 힘을 일깨워 준다

자녀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무언가 변화를 일으킬 힘이 있음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그들은 재해 희생자를 위한 모금 활동을 돕거나,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방문하거나, 가족을 잃은 누군가를 복돋아 주거나, 시련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는 없으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 주도록 도울 때마다 [우리는] 평안을 끼치려 힘쓰는 것이다.”²



위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앞으로 나쁜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짓된 약속은 하지 말고, 그들이 현재 안전하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리라는 확신을 심어 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겪게 되는 모든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리라고 안심시킨다.

여러분 자신이 역경으로 낙담하게 될 때, 결국에는 선이 악을 물리치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죄에 맞서 전쟁하고 있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전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³ ■

주

1. “평화”, 복음 주제, topics.lds.org.
2. “평화”, 복음 주제.
3. 토마스 에스 몬슨,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감”, *리야호나*, 2008년 5월호, 90쪽.

어린이들을 위하여

이번호 친구들 이야기

-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친20쪽)
- “위로 카드”(친21쪽)

더 많은 자료를 보려면 lessonhelps.lds.org에서 “주제별 학습 도움말”을 클릭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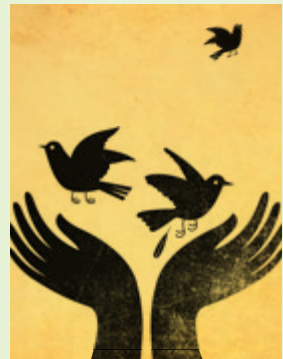


십 대를 위하여

이번 호 이야기

- “힘든 시기에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평안을 찾는 방법”(52~53쪽)

더 많은 자료를 보려면 youth.lds.org를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

우 리 삶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느 학교를 다닐 것인가 등과 같은 중요한 선택의 연속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을 십분 활용하고, 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시련 가운데에서 평안을 찾는 등의 일상적인 근심거리도 가득하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계시를 받는지, 계시를 받을 때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응답을 받거나 인식하지 못할 때면,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을 느낄 수도 있다. '영의 느낌이였을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이었던 걸까?' '그렇게 행하라는 영감을 받았는데 왜 실패한 거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들까?'

다행히도, "결정 앞에서: 선택의지인가, 계시인가"(44쪽)에서 우리는 인생을 바꿀 만한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 에린이 받았던 개인적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고 싶어 하신다.** 그와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훌륭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선택의지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고 싶어 하신다.

성신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배우는 것은 계시를 받고 인식하는 일에서 또 다른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48쪽에서는 **계시를 받는 방법에 대한 청년 성인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온라인 전용 기사에서 애스펜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으려면 "영적인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 감당하기 힘들고 두려운 마음마저 들 수 있다. 청년 성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과거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기억해 보면, 앞으로도 **그분은 내게 필요한 인도를 계속 주시리라고** 믿으며 나아가 행할 용기가 생긴다.

진실한,

케이티 수 엠블리

Katie Sue

최고의 조언 ...

청년 성인들이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것에 관해 자신이 받은 가장 훌륭한 조언을 이야기한다.

“한번은 저의 EFY 고문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보세요. 관계가 끈끈해질수록 더 많이 이해하고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저의 기도에 아주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랜트 굴스비, 미국 캘리포니아주

“저희 스테이크 축복사님은 모두에게 이 한 문장을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를 받으려면, 계시를 읽으십시오.’ 이 말씀은 제가 경전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헬비 티페츠, 미국 미주리주

“시간을 내어 깊은 생각에 잠겨 보세요. 조셉 스미스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상고하고 나서 행동에 옮길 결심을 했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와 공부에 투자하기를 바라세요. 그렇게 할 때 가장 많이 배우게 되죠.”
—나타샤 허브스트, 미국 유타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세요.”
—사이 투아, 미국령 사모아

회개에 관해 여러분이 받은 가장 훌륭한 조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2019년 4월 30일까지 liahona.lds.org로 보내 주십시오.

청년 성인 저자들 소개

에린 라이더는 변호사이자 팟캐스트 공동 진행자이다. 얼마 전에 처음으로 하프 마라톤을 완주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독서, 하이킹, 웨이크보딩, 그리고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애스펜 스탠더는 미국 유타주 출신의 작가이자 편집인이다. 하이킹, 여행, 독서, 피아노 연주를 좋아한다.



케이티 수 엠블리는 세상이 널리 알려져야만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sharegoodness[선함을 나누는 것]를 목표로 하며 신문방송학과 스페인어를 공부한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청년 성인 여러분, 나누고 싶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주제에 관한 기사를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글이나 피드백을 liahona.lds.org로 보내 주십시오.

이번 호 이야기

44 결정 앞에서: 선택의지인가, 계시인가
에린 라이더

48 각자에게 맞는 개인적인 계시



아래에서 이 기사들과 그 외의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본다.

- liahona.lds.org
- 복음 자료실 앱의 (“청년 성인” 섹션에 있는)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
- facebook.com/liahona

온라인 전용

영적인 근육을 단련함
애스펜 스탠더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시에 얼마나 의지해야 하는가?

결정 앞에서: 선택의지인가, 계시인가

에린 라이더

우 리 각자는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린다. 어떤 것은 더 평범하다. 이를테면, '무엇을 입어야 하지?' '점심은 무엇 먹을까?' '새 차를 살 때가 되었나, 아니면 쓰던 차를 좀 더 타야 하나?'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복학을 해야 하나?' '이 일자리를 수락해야 하나?' '새 도시로 이사해야 하나?' '집을 사야 하나?' '이 사람과 데이트해야 하나?'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나?' 등과 같은 결정 말이다.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그에 적절한 만큼 더 시간을 들여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 9편 8~9절에 나오는 올리버 카우드리가 받았던 권고를 따른다.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나니,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네 가슴을 네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되리라.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아니하면, 네게는 그러한 느낌이 없을 것이요, 도리어 생각이 둔하여져 그른 것을 잊어버리게 되리니.”

비록 이것이 분명 좋은 권고이긴 하지만,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말해 주신다는 부분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나머지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충분히 무게를 두지 않을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확인해 주시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놀라운 기회들을 놓쳐 버리게 된다. 우리는 선택의지의 역할을 인식하지만, 우리가 내리는 결정 때문에 예정된 '계획'에서 이탈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슴이 뜨겁게 되는 것이나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이외의 것은 우리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선택의지와 개인적인 계시 간의 이 소리 없는 줄다리기는 많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의 결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도와주시는가?

우리의 결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야렛 형제의 이야기에 가장 잘 나와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에는 흥미로운 성장의 모형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방식에 관해 배울 수 있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된 후, 야렛은 자신의 형제에게 그들이 땅을 떠나야 하는지, 혹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주님께 여쭙 보라고 한다.(이더서 1:36~43 참조) 야렛의 형제는 여쭙었고, 주님은 그들을 해안가로 인도하셨다. 그들이 이동하는 동안, 주님은 구름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여정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그들은 마침내 바닷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4년을 머물렀다.

그 4년을 채울 무렵, 하나님은 야렛의 형제에게 배를 지어 바다를 건널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배에 공기가 없을 것임을 알게 된 야렛의 형제는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나님께 가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여쭙었다. 예상했던 대로, 주님은 배의 천정과 바닥에 구멍을 뚫을 자세한 방법을 알려 주셨다. 이때까지 등장하는 계시의 모형을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을 주신다. 그들은 이 계획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세하고 분명한 응답을 주신다.

그러나 배에 구멍을 뚫고 난 후,

야렛의 형제는 이 배에 빛이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여쭙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대신 이렇게 물으신다. “너희가 너희의 배 안에 빛을 갖도록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이더서 2:23) 주님은 이전처럼 자세한 지시를 주시는 대신 야렛의 형제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를 기다리셨다.

주님으로부터 온 이런 방식의 응답은 아마도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우리는 기도한 뒤 응답을 기다리라고 배우지만,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걱정이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분명한 응답이 없는 것이 바로 “생각이 둔하여져” 우리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혹은 그것이 우리가 응답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의롭지 않거나, 우리가 “진정한 의도”(모로나이서 10:4 참조)로 간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닌지 의문스러워한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 간과하는 세 번째 경우가 있다.

아마도, 하나님은 야렛의 형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시는 것일지도 모른다.

결정을 내리면서

나는 최근에 선택의지와 개인적인 계시에 관한 내 생각을 바꾸어 놓은 상황을 경험했다.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서 나는 여러 도시에 있는 회사에서 채용 제안을 받았는데, 어느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야렛의 형제처럼 나는 많은 경우 중요한 결정에 관해 기도했었고,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분명한 응답을 주셨다. 나는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내가 어느 직장을 택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 주시기를 기도했다. 나는 또한 내 몫을 다하기 위해 각 채용 제안을 알아보고, 많은 사람의 조언을 얻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하늘은 침묵했으며 아무 응답도 오지 않았다.

결정을 내려야 할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겁에 질렸다. 분명 주님은 이 결정에 관해 마음을 쓰실 터인데

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걸까? 아마 그분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느 도시로 가야 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것이 의문의 여지 없이 내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과거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결정에 대해 관심을 보이셨는데, 이 결정에도 그러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응답은 오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나머지 그분의 응답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염려했다. 또, 내가 무의식적으로 응답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었다. 결국 결정을 내려야 할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나는 무슨 결정이든 내려야만 했기에 내 판단력에 의지하여 결정을 내렸다. 그날 밤, 나는 내 결정이 그릇되지 않는지 알려 달라는 단순한 기도를 드렸다.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었고, 나는 그대로 그 직장을 선택했다.

여러 달이 지난 후, 나는 내 결정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든 나머지 확신을



언기 위해 신권 축복을 받았다. 그 축복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기쁘셨기 때문에 응답을 주지 않으셨다는 말을 들었다. 이 축복으로 나의 선교부 회장님이 이전에 주셨던 권고도 더욱 확실해졌다. 회장님은 내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때도 많다는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하는 법을 배우길 바라신다. 나의 선교부 회장님은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진심으로 알아내려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약속된 축복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리라는 점도 상기시켜 주셨다.

야렛의 형제는 배를 밝히기 위한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었을 테고, 주님은 그 결정을 기쁘게 여기셨을 것이다. 이 경험은 야렛의 형제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선택의지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장의 필수 요소이다. 이것 없이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복음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성장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온다.(니파이후서 28:30)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된 백성이 되길 바라시지, 마비된 백성이 되길 바라시지 않는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삶에서 선택의지를 최대한 활용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선택의지와 계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되면, 참된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야렛의 형제가 경험한 것이 그것이다. 그는 문제를 숙고한 뒤, 바위에서 16개의 돌을 녹여 내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만지셔서 빛이 나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이더서 3:1~5 참조) 이번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름 속에서 듣는 대신, 야렛의 형제는 실제로 주님을

보았으며, 그분은 야렛의 형제에게 몸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장차 있을 일에 관한 놀라운 시현을 보여 주셨다.(이더서 3:6~26 참조) 야렛의 형제가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림으로써 개인적인 성장을 먼저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시현을 받을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분명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라는 엘마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엘마서 37:37) 주님께서 우리가 특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그분은 분명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우실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응답이 오든 오지 않든 간에 일어서서 신앙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성약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는 한, 우리는 자신의 의로운 결정에 대한 확신과, 주님이 우리의 노력을 기뻐하신다는 평안을 느낄 수 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여러분은
계시와 자기
생각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각자에게 맞는 개인적인 계시

우리는 수많은 기회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 학교, 배우자, 거주지, 그리고 이외의 수많은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죠. 참으로 이것은 우리 세대에 주어진 큰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수많은 선택의지와 기회가 모두 좋은 일로 연결될 경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회가 너무나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이 폭풍처럼 몰아쳐 마치 길을 잃은 듯 혼란스럽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하심을 기억하세요. 그분의 음성을 따른다면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구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인식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따르며, 인내하고, 더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신앙을 가진다면,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비라 바센코, 우크라이나 키예프

저는 살아오는 내내 저를 위한 주님의 인도를 목격했습니다. 제가 성취한 모든 것은 그분과 그분의 인도 덕분입니다. 혼자 걷고 있다고 느낄 때에도 결국에는 그분이 저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느끼도록 해 주셨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늘 신앙으로 나아가자고 다짐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가끔은 가야 할 길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고, 미래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항상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딤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제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꺼이 인도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또한 우리가 영의 속삭임을 느낄 때 그분들을 신뢰하고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인디라 메히야, 도미니카 공화국





저는 우리가 성신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인식하는 가장 놀랍고도 중요한 기술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제가 그 능력을 키우고 통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늘 부지런히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이 성신의 권능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믿어 왔습니다.(니파이전서 10:19 참조) 즉, 영을 인식하고 싶다면 쓸모없는 생각이나 삶에 대한 일상적인 걱정에 사로잡히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는 대신, 일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고 나 자신을 잊어야 합니다. 그때야말로 스스로 잘 준비된 상태이므로, 영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배가 쉽게 항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근심 걱정에 빠져 있다면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에마뉘엘 본그레잇 도그비, 가나 아크라

저는 자라면서 영의 언어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영은 단순한 생각을 통해 제게 말합니다. 그것에 익숙해지는 데는 연습이 필요했지만, 영은 대개 출근길에 운전하는 시간처럼 조용한 곳에서 옵니다. 종종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 갑자기 영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저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클레리사 메이 테일러, 미국 유타주

우리는 이 오붓한 가정 안에서, 특히 남편과 제가 부부로서 함께 느끼는 평안 덕분에 성신을 인식합니다. 만일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면 그것이 확실히 옳다는 느낌이 없고, 왠지 모를 의심이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계시인 경우에는 우리가 합리화하려 해도, 그리고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늘 평안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 계시를 따라 계속 행한다면, 항상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며, “아, 이제야 이해가 되네!”라고 말하곤 합니다.

—메리어나 라이트, 미국 유타주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방법이 제각기 다르더라도, 이 한 가지가 참되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는 우리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기꺼이 노력해야만 한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여러분의 걱정, 두려움, 약함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소망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으십시오. 받은 느낌을 기록하고, 여러분이 해야겠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에 옮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루하루, 수개월에 걸쳐, 수년에 걸쳐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5쪽) ■



이번 호 이야기



- 52 힘든 시기에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평안을 찾는 방법
앨릭스 휴기 및 애스펜 스탠더
- 54 인생은 마라톤이다
샬리 존슨 오드커크
- 60 질의응답: 결정을 내릴 때 축복사의 축복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62 새로운 부활절 전통을 세워 보세요
데이비드 덕슨
- 64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표현
엠 러셀 벨라드 회장

처음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힘들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고등학교에서 새로 접하게 된 과목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과목을 잘 이해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신앙을 가졌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로 학교에서든 다른 어디에서든 기도와 신앙은 내가 해야 할 일 목록에 항상 있었다. 남학교에 다니는 건 녹록치 않은 일이다. 일부 친구들이 하는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 때문이다. 그런 일이 생길 때면,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성신을 떠나게 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어머니는 내게 항상 성신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고, 나는 그런 어머니께 감사드린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니암 에스, 16세, 가나



삶

은 때로 우리를 송두리째 뒤흔든다. 지금도 우리는 가족의 고민거리, 건강 문제, 학교 문제 및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심각한 사건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수 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개인적인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평안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자기 능력 밖의 일에 있던 자신이 영향을 미치고 바꿀 수 있는 일에 있던 간에, 어느 때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적 평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힘든 시기에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평안을

우리 자신을 위해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1. 영원에 초점을 둔다

단기적인 걱정거리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평안을 느끼기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이라는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 상처가 되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전은 우리가 영원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성전에서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¹

2. 자기 능력 밖의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평안을 느낄 수 없게 되면,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히기 쉽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대신,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지라도 내적 평안을 찾기 위해 구주께 나아간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곧 성신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요한복음 14:26~27 참조)


3.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 버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그 기쁨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 우리 또한 자신의 삶에서 용서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 그 결과 주님의 영은 성스러운 양심의 평안을 동반하는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모사이아서 4:2~3 참조)² 구주께 의지하는 것은 정서적 부담을 내려놓고 평안을 충만히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의지한다

죄라는 짐을 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사는 것 같더라도 평안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 감독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정기적으로 회개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를 그분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된다.





찾는 방법

앨릭스 휴기 및 애스펜 스탠더
교회 잡지

삶이 힘들어질 때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이 평안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여덟 가지 방법이 있다.

다른 이들이 평안을 찾도록 도울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눈다

우리가 구주께 초점을 맞춤으로써 개인적으로 평안을 찾을 수 있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분이 “화평을 세우신 이”이심을(모사야서 15:18) 알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데 도움이 된 성구나 연차 대회 인용문을 나누어 본다.

2.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

자신의 친구나 형제자매가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엘마서에 나오는 안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험담, 보복, 이기적인 행동과 같은 전쟁 무기를 땅에 묻고, 그 대신 친절할 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타인을 용서하는 것과 같은 평화의 도구를 들 수 있다.(엘마서 24:19 참조)

3. 훌륭한 경청자가 된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드러내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그저 걱정거리를 들어주고 지지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이해심을 보일 수는 있을 것이다.

4. 와드 및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푼다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또래의 공부를 도와줄 수도 있고, 새로 이사 온 이웃의 가족에게 음식을 가져다줄 수도 있다. 사람들이 작은 것에서 평안을 찾도록 돕는다. 먹고 잘 수 있는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것, 신뢰할 만한 멘토가 있는 것, 또는 나를 생각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작은 확신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예수께서는 평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에게 다음과 같은 위안의 말씀을 주셨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우리가 자신과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노력한다면, 삶이 힘들 때도 평안을 찾을 수 있다. ■

주

1. 고든 비 헝클리, “성전 축복을 기뻐함”, 리야호나, 2002년 12월호, 33쪽.
2. 디아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안전한 귀환 지침”, 리야호나, 2007년 5월호, 101쪽.



인생은 마라톤



이다

이 후기 성도 청소년들이 사는 곳은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던 곳과 같다. 또한 그들은 바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샬리 존슨 오드커크
교회 잡지

사도 바울이 한때 힘차게 설교했던(사도행전 17:22~34 참조) 그리스 아테네 근처의 아레오파고스에서 몇 달 전에 세미나리 학생들이 모였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비롯하여 세미나리가 자신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18세인 알렉시스 에이치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에 살면 신약전서가 실제처럼 생생하게 다가와요. 아버지는 바울이 사람들을 가르쳤던 여러 유적지에 가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거기서 성구를 나눠 주시거나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세요.”

그 당시에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그리스의 청소년들 또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겪는다. 그리스에서는 청소년 대회와 청년 야영 같은 행사가 드물다. 심지어 세미나리에 다니기도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과 다른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청소년들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바울의 격려 말씀을 실천한다.(빌립보서 1:27)

그리스에서 산다는 것은 이 청소년 회원들이 따뜻한 날씨와 해변, 음식 그리고 춤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들은 서로 함께하는 것도 매우 즐긴다. 세미나리를 하고 지부 활동을 하면서 그들은 신앙과 우정이 더욱더 굳건해졌다.

아레오파고스에서 하는 세미나리

몇 년 전에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세미나리를



“저는 복음이 어디에서나 똑같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외국에 살면서 다른 문화에 정신을 빼기는 대신 복음 진리에 집중하고 영을 느끼는 법을 배웠어요.”
—브뤼아나 더블유, 15세



“저는 올해 제게 일어난 일들, FSY, 청년 야영, 세미나리까지 이 모든 걸 기억하기 위해서 거울에 ‘기억하라’라고 썼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마리 에이치, 17세



“저는 세미나리에 갈 때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음을 알아요. 또 모든 게 잘 되리라는 것도 알아요.”
—리지 티, 17세



16세인 루키아 시는 청년 야영에서 처음으로 간증을 했으며 나중에 침례를 받았다.



아테네 집회소 앞에 있는 세미나리 학생들

사진 제공: 라틴 헤더

시작했을 때, 학생은 단 5명뿐이었다. 그들은 일주일에 3일을 아침에 만나서 세미나리를 하는데, 학생 일부는 온라인 화상 연결을 통해 참석한다. 그들은 또한 수요일 오후에 모여 세미나리를 하고, 수업을 마친 다음에는 활동도 한다. 청소년들은 서로 가까워졌으며, 그들의 모범을 주목하고 있던 친구들에게 빛이 되었다. 친구들이 질문하면, 청소년들은 그들 세미나리와 상호 향상 모임 활동에 데려온다.

15세 청년인 파블로스 케이는 “세미나리에 가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세미나리에 가는 덕분에 굳건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겠다는 마음가짐도 생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청소년들이 더 강해지고 서로 하나가 될 때, 축복과 기회가 온다. 예를 들어, 그들은 2017년 대규모 지역 청소년 대회인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FSY)에 참석하는 축복을 받았다. 청년들은 그리스에서 최초로 열린 청년 야영에 참가했다. 그 결과, 청년들은 서로 더 가까워졌고, 청년 두 명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국제 FSY 대회

독일에서 열린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후기 성도 청소년들이 전 유럽에서 모였다.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그리스와 키프로스의 청소년들도 이 모임에 참가했으며, 이 대회에서 얻은 경험은 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14세인 막시모스 에이는 말한다. “FSY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일은 간증 시간이었어요. 모두가 영을 느꼈죠. 저도 저만의 간증을 키워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어요.”

16세인 루키아 시는 이렇게 덧붙였다. “처음에는 그냥 네 명의 청소년만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결국엔 열다섯 명이나 참석하게 되었어요. 비회원 친구도 세 명이나 함께 갔죠.

같은 복음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저만 다르다고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했고, 같은 영을 느꼈어요. 이런 것들이 제게 도움이 돼요.”

16세인 예시아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빠는 회원이 아니셔서, 제가 FSY에도 못 가게 하시고 침례도 못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부 회원들이 저를 위해 금식을 하셨고, 할머니도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랬더니 아빠가

대회에 가도 된다고 허락하셨어요!”

에시아나는 FSY에서 많은 것들을 처음으로 경험해 보았다. “공과와 활동에 참여하고 간증을 해 보니 성신을 실제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전에는 영을 그렇게 느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행복하고 기뻐요. 처음으로 간증도 나누었죠.”

영적인 양식을 취한 것에 더해서, 청소년들은 대회에서 긴장을 풀고 함께 재미있는 시간도 보냈다. 14세인 하이그 티는 키프로스에서부터 와서 대회에 참석했다.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진정한 우정을 쌓고, 어려운 시기에도 즐겁게 지내는 법을 배웠어요.”

청녀 야영

청녀 야영도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 12명의 청녀들은 고대의 전투지였던 마라톤 근처에서 지도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3일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 힘이 되어 주고 격려하며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루키아는 이렇게 말했다. “열두 살 때 처음으로 교회에 갔을 때, 정말 행복했지만 제 나이 또래가 하나도 없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청녀들이 이렇게나 많아져서 처음으로 청녀 야영도 할 수 있게 되었죠.” 모두와 함께 만났을 때, 루키아는 이렇게 느꼈다고 한다. “후기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복음대로 생활할 때, 빛이 우리를 감싸 줘요.”

15세인 브뤼아나 더블유는 FSY와 청녀 야영 덕분에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게 되었다. 브뤼아나는 이렇게 말했다. “저희 가족이 이사를 자주 한 데다 저는 수줍음이 많은



“FSY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운동, 춤, 그리고 아침 영적 모임과 평가 모임과 같은 그룹 모임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더 많이 듣고 인내하며 경전에 더 감사하게 되었어요.”
—하이그 티, 14세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FSY로 가는 길에.



FSY 대회에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오는 “ASK[구하라]라는 낱말을 만들고 있다.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빌립보서 1:27



이리니 에스가 FSY에서 공연하고 있다.



“FSY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그 덕분에 강해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이죠.”
—알렉시스 에이치, 18세



“FSY에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른 것은 지금까지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용감한 일일면서 가장 마법과도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어요.”
—이리니 에스, 17세



“청녀 야영에서 저는 인생이 마라톤 같은 것이라고 배웠어요. 마라톤을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길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제 신앙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죠. 그 경험 덕에 저는 간증을 키우고 계속해서 신앙을 갖고 올바른 길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어요.”
—워니프레드 케이, 14세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청녀 야영 주제



그리스 마라톤에 있는 청녀들.



“해변에 있는 조약돌들이 모두 다르듯이, 우리도 모두 독특합니다.” —브뤼어나 더블유



“일출을 보면서 고요하고 아름다운 영을 느꼈습니다.” —리지 티

성격이어서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FSY에서 우리 그룹과 친해지면서 진짜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죠. 간증 모임에서 느낀 점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도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느낀다는 걸 알게 됐어요.”

17세인 마리 에이치는 청녀 야영 주제를 기억한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청녀들과 지도자들이 경주를 참고 견디며 마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토론했다고 이야기하며 마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 토론은 제가 참고 견딜 수 있고, 제 속도에 맞추어서 결승점에 계속 집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 주었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바라시는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야영의 백미 중 하나는 마지막 날 동틀 무렵에 해변에서 했던 영적 모임이었다. 17세인 리지 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경전을 가지고 가서 영적 모임을 하고, 일출을 보았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죠.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을 멋지게 마무리해 주었어요.”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마주하라

17세의 이리니 에스는 이렇게 말했다. “FSY와 청녀 야영에서 저는 복음에 대해 많이 배웠고 복음이 제 인생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배웠어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 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죠. 저는 성신을 깊이 느꼈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어요.”

이리니는 다른 후기 성도 청소년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감도 늘었다고 말했다. “FSY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했고,



2017년 청년 야영—그리스 최초의 청년 야영



“같은 신념을 가진 청소년들이 주위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어 정말 좋았어요. 그저 서로의 이름을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특별한 방식으로 모두 연결된 것 같다고 느꼈어요.”
—파블로스 케이, 15세



“매일 저와 같은 일을 겪는 다른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요수아 케이, 17세



“저는 전 세계 어느 곳의 FSY나 청년 야영에 가도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저는 규모가 작은 청년 야영이 더 좋았는데, 서로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올리비아 에이치, 15세



“저는 교회 회원이 아니지만, 갈 수 있는 주에는 늘 교회에 갑니다. 저는 청년들이 대표하는 가치를 존경해요.”
—이레네 시, 14세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17세인 마넷세 에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복음 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는 영향력을

미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어디에서나 같으며, 우리는 항상 올바른 길에 머물러야 해요.”

그리스에 있거나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는 같은 길을 걸으며 영으로 하나가 된다. ■

그리스의 교회



1900년대 초, 아테네 출신의 리가스 포판티스라는 한 인쇄업자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교회에 관해 알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 터키에 있던 선교부 회장이 포판티스를 가르쳤고, 그는 1905년 10월에 침례를 받았다.



그리스에서 교회의 성장은 1950년대에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그리스계 미국 교회 회원들이 그리스 후기 성도 협회를 조직하기 전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 협회는 그들이 물려받은 유산을 보존하고 고향과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1965년에 아테네에 소규모의 교회 모임을 조직했으며 1967년에 그 그룹을 재조직했다. 1990년 7월에는 그리스 아테네 선교부가 세워졌으며, 1999년 5월에 그리스의 첫 번째 집회소가 완공되었다.



그리스 아테네 할란드리에 있는 집회소



교회 회원: 802명
집회소: 3곳

“결정을 내릴 때 축복사의 축복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축복사의 축복은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계시로, 도로 중앙에 그어진 흰 줄과 같이 보호하고, 영감을 주며, 활동과 의로움에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영원한 가능성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은 여러분을 어김없이 여러분의 하늘 나라로 인도하는 빛의 리아호나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축복사의 축복: 빛의 리아호나”,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84~85쪽.



자신만의 리아호나

축복사의 축복은 자신의 전세와 현세, 그리고 영원한 정체성을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한 방법입니다. 자신에 관한 이 세 가지 특별한 진리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으며,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압니다. 리아호나가 그 지침을 따르는 니파이와 그의 가족의 신앙과 근면에 따라 작동했던 것처럼(니파이전서 16:28 참조), 우리 역시 충실하고 근면하게 자신만의 리아호나와 그 지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리아호나는 신성한 잠재력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타이 장로, 20세, 아르헨티나 살타 선교부



영원한 관점

내가 도무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 저는 축복사의

축복을 읽으며 거기에 담긴 신성한 계시를 상고합니다. 그러면 결정이 좀 더 쉬워집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제가 지상 생활을 좀 더 잘 견디고 약속된 축복을 얻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언젠가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저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제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영원한 관점을 지니고 사는 데 지속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애비게일 에프, 18세, 필리핀 카가안벨리



하늘에서 온 권고

축복사의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께 저에게 주시는 권고입니다. 그 권고를

따르면, 제가 해야 할 결정과 관련된 계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때론 제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캐미 에이치, 16세, 미국 유타주

영에 귀를 기울이세요

화급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나 위안과 인도를 구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성신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축복사의 축복을 읽어 보세요. 경전을 상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진정한 신앙으로 이렇게 행한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시간에 가장 좋은 방식에 따라 응답하실 것입니다.

캐지아 비, 15세, 미국 하와이주

약속된 축복

축복사의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그분처럼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과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축복을 얻기 위한 선택을 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헌터 에이치, 18세, 미국 유타주

제시된 의견들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청년으로서 교육과 직업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까, 아니면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할까?

우리는 “가족은 창조주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며,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임을 안다.¹ 또한, 우리는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선한 목적으로 남녀 모두 교육을 받도록 권고했음을 안다.² 더욱이 우리는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필요로 하거나 직업을 갖고 싶어 하리라는 것도 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맬린 에이치 옥스 회장은 여성들에게 가족이나 교육 및 직업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님을 설명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영감을 구하고 그분의 종들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³

교육을 받을 계획과 가족을 꾸리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직업을 얻기 위한 계획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만 한다.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familyproclamation.lds.org.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11), 9쪽 참조.

3. 맬린 에이치 옥스, 옥스 장로 및 벨라드 장로와 함께하는 실시간 대화 모임(전 세계 청년 독신 성인 모임, 2017년 11월 19일), broadcasts.lds.org.

[lds.org/go/41961](https://www.lds.org/go/41961)에서 우리는 직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아니면 가족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한 청년 성인 자매의 이야기를 만나 볼 수 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이 그녀에게 해 준 말씀을 읽어 본다.

다음 질문

“첫번째 시험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9년 5월 15일까지 [liahona.lds.org](mailto:liahona@lds.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사나 피드백 제출” 클릭) 아니면 여러분의 답변과 사진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제출할 때 성명과 소속 와드 및 스테이크(또는 지부 및 지방부)를 적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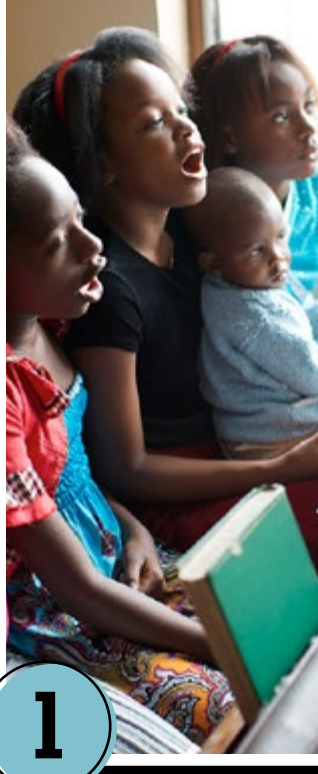


데이비드 디슨
교회 잡지

대 체로 모든 휴일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날은 성탄절이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기념하는 오래전의 그 일들이 없었다면, 성탄절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부활절이 없었다면 성탄절도 없었을 것입니다. 겐세마네와 갈보리에서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었다면, 또 부활의 승리가 없었다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는 다른 아기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¹

매년 기념하는 행사에 다음과 같은 전통을 추가해 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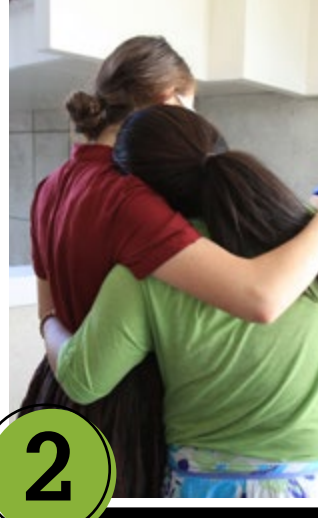


1

밖으로 나가 부활절 노래를 부른다

순록과 요정에 관한 비현실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성탄절 캐럴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웃집 현관 앞에서 구주에 관한 노래를 부르기에 부활절처럼 완벽한 때도 없다.

어떤 노래를 부를지 생각나지 않는다면, 찬송가의 “주제별 분류” 색인에서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구주”, “성찬”에 포함된 노래를 찾아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노래는 모두 부활절에 부르기에 적절하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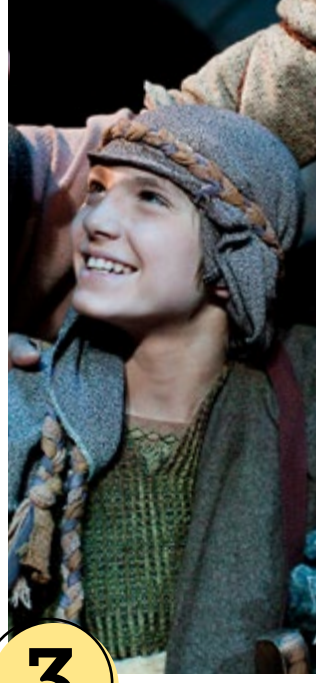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회개의 은사에 대해 감사해하는가? 부활절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와 똑같은 용서의 영을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마땅히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교리와 성약 64:9~10)

이렇게 자문해 본다. 나는 누구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는가? 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사라지도록 구주의 도움을 구한다.



3

야외극이나 연극 등의 공연을 한다

여러분은 부활절 공연을 준비할 수 있다. 간단한 예로 가정의 밤이나 지역 사회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공연에 참여하여 경전 구절을 읽을 수도 있다.

새로운 부활절 전통을

세워 보세요



4

사랑하는 사람들의 묘소를 방문한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사망은 쓰는 것을 잃었다.(고린도전서 15:55 참조) 사랑하는 이들의 묘소를 찾아 이 기쁜 소식을 상고하는 시간을 보낸다.

묘소에 가서 부활에 관한 몇 가지 좋아하는 경전 구절을 낭독할 수도 있다. 그때 낭독하기에 적합한 많은 경전 구절 중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 고린도전서 15:20~22, 옐마서 11:42~44, 교리와 성약 88:14~16 등이 있다.

5

더 나은 사람이 된다

부활절은 겐세마네 동산 및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구주, 그리고 구주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베푸신 성역을 기린다.

또한, 하늘로 승천하시고 얼마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니파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성역을 베푸셨다.(제3니파이 11장~28장 참조) 부활절에 기념할 것들이 이렇게나 많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시간을 더 늘려 보면 어떨까? 여러분의 영혼이 부활절의 기적 안에서 기뻐할 시간을 더 오래 보내도록 한다.

부활절 이후 40일간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 본다. 영감을 얻기 위해, 러셀 엠 넬슨 회장이 말한 다음 권유를 생각해 본다. “매주 시간을 내어 구약전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전부 공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구약의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전서에 기록된 그분의 율법을 공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몬경에 기록된 그분의 교리를 공부하십시오.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성역이 이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전은 없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주님은 이 경륜의 시대에 자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²

여러분만의 새로운 전통을 추가할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아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인지 알려면, 우리는 약 2,000년 전 겐세마네 동산의 그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삼으시고자 온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바로 그날입니다.”³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은 매년 시간을 들여 깊이 상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전통을 세우면 그런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목록에 있는 것이든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전통을 세우기 위해 실행해 본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전통을 추가하겠는가? ■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기억하는 시간을 좀 더 보내 본다.

주

1. 고든 비 힝클리, “성탄절에 실제로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 *리아호나*, 2000년 12월호, 6쪽.
2. 러셀 엠 넬슨, “선지자와 지도력,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2017년 1월 8일), broadcasts.lds.org.
3. 디아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보라 이 사람이로다!”,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08쪽.

미대륙을 방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 존 스키포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표현

엠 러셀 벨라드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하나님은 우리가 발전하고 잠재력을 이룰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잠재력, 우리의 영원한 가능성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권고와 계명을 자신의 지침 안내서, 즉 경전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지침을 이해하고 따를 때, 우리의 생활은 목적과 의미를 띠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비할 데 없는 거룩한 사랑으로,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17)

예수께서는 필멸의 존재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삶을 영위하셨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따를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12)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기꺼이 속죄하시고 고통당하신 것을 생각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깊이를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그분]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9:18)

이 부활절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하여, 그분을 통해서, 이 일시적인 필멸의 상태가 영원하고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으니, 그때의 우리 기쁨은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모든 경이로움은 주님의 거룩한 권능을 어렵게나마 알려 주며, 그분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권능을 통해 우리가 죽음과 무덤에서 나와 죽음에 없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하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

1988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1950년대 초에 아버지가
 경영하는 **자동차
 영업소**에서 일했으며,
최우수 영업사원으로
 뽑힘.



1928년 10월 8일에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태어남.



유타 대학교에서
 수학함.

엠 러셀 벨라드 회장



영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함.



1974년부터
 1977년까지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함.



아내 바바라
 보언을 유타
 대학교 **사교
 댄스파티**에서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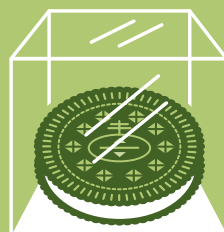


1951년
 8월 28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바버라 보언과
 결혼함.



7명의 자녀와
 43명의 손주,
 91명의 증손주가
 있음.

긴 여정 끝에 난민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받은 과자
 꾸러미에서 첫 번째로 꺼낸 과자를
 벨러드 장로에게 건넨 한 소년을
 기억하고자 **오레오 과자**를
 책상 위에 보관함.



조부: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외조부:
 하이럼 맥 스미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1985년
 10월 6일에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지지받음.



2018년 1월 14일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로
 성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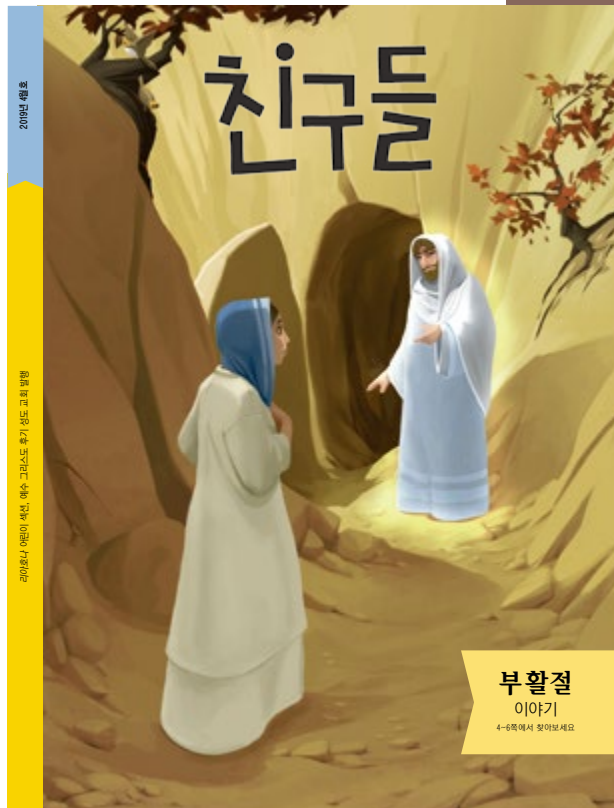


1980년 10월
 연차 대회
 이후, 개인적인
 간증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600통이
 넘는 편지를
 씀.

어린이를 위한 페이지가 늘어나다

새로운 『친구들』을 잘 활용해 본다. 가정에 어린이가 없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리아호나를 구독하지 않는 가정과 『친구들』을 나눈다.
- 친구나 이웃에게 준다.
- 초등학교 지도자나 교사에게 전달한다.



청년 성인
중대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가?

42

청소년
자신 및 다른 이들과
화해함

52

부활절
새로운 전통

62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친구들

리아호나 어린이 섹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부활절

이야기

4~6쪽에서 찾아보세요



러셀 엠 벨슨
회장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어느 날 벨슨 자매와 저는 수족관에 있는 열대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선명한 색채에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인 물고기들이 앞뒤로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에 있던 직원에게 “이 아름다운 물고기들에게는 누가 먹이를 주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줍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물고기들이 감사를 표현한 적이 있나요?”

그러자 그녀는 “아직은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물고기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인식하고 그분께 감사를 표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몹시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11:25~26)

이것이 바로 송고한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

러셀 엠 벨슨,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77~80쪽.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다음 문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찾아보세요. 각 문장을 읽을 때마다 햇살 한 줄기를 색칠해 보세요. 그런 후, 나머지 부분도 색칠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겪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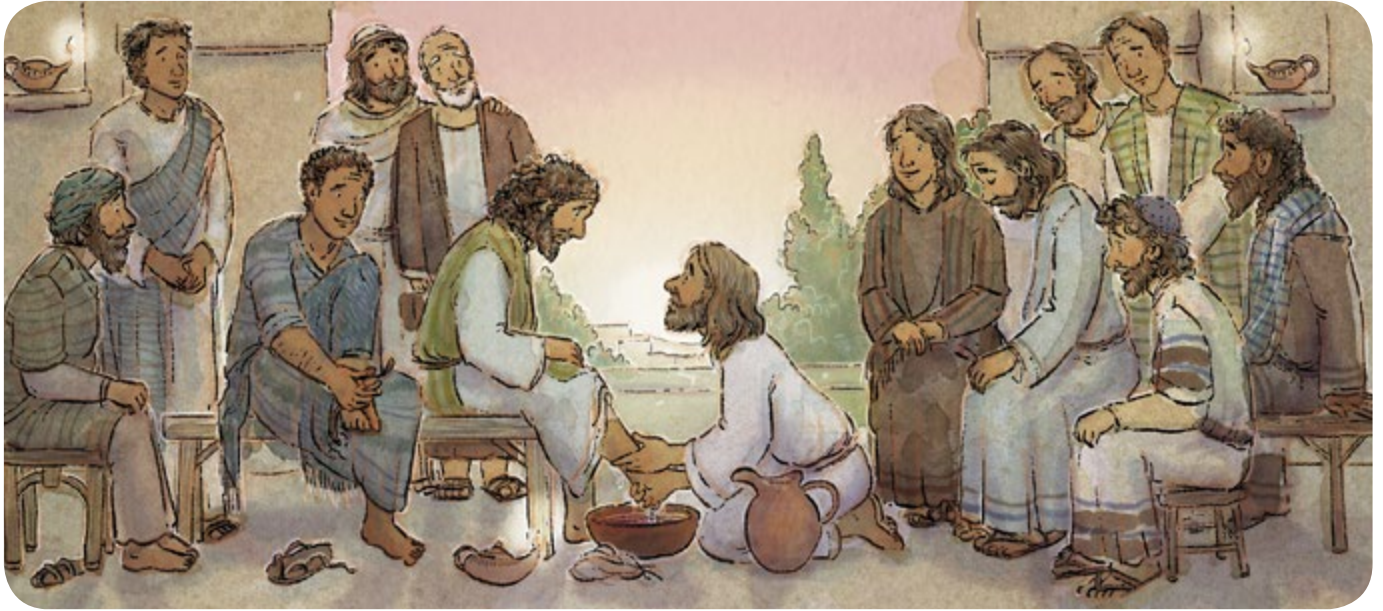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성찬식을 제정하셨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보여 주셨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모두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절 이야기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친구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친구들에게 당신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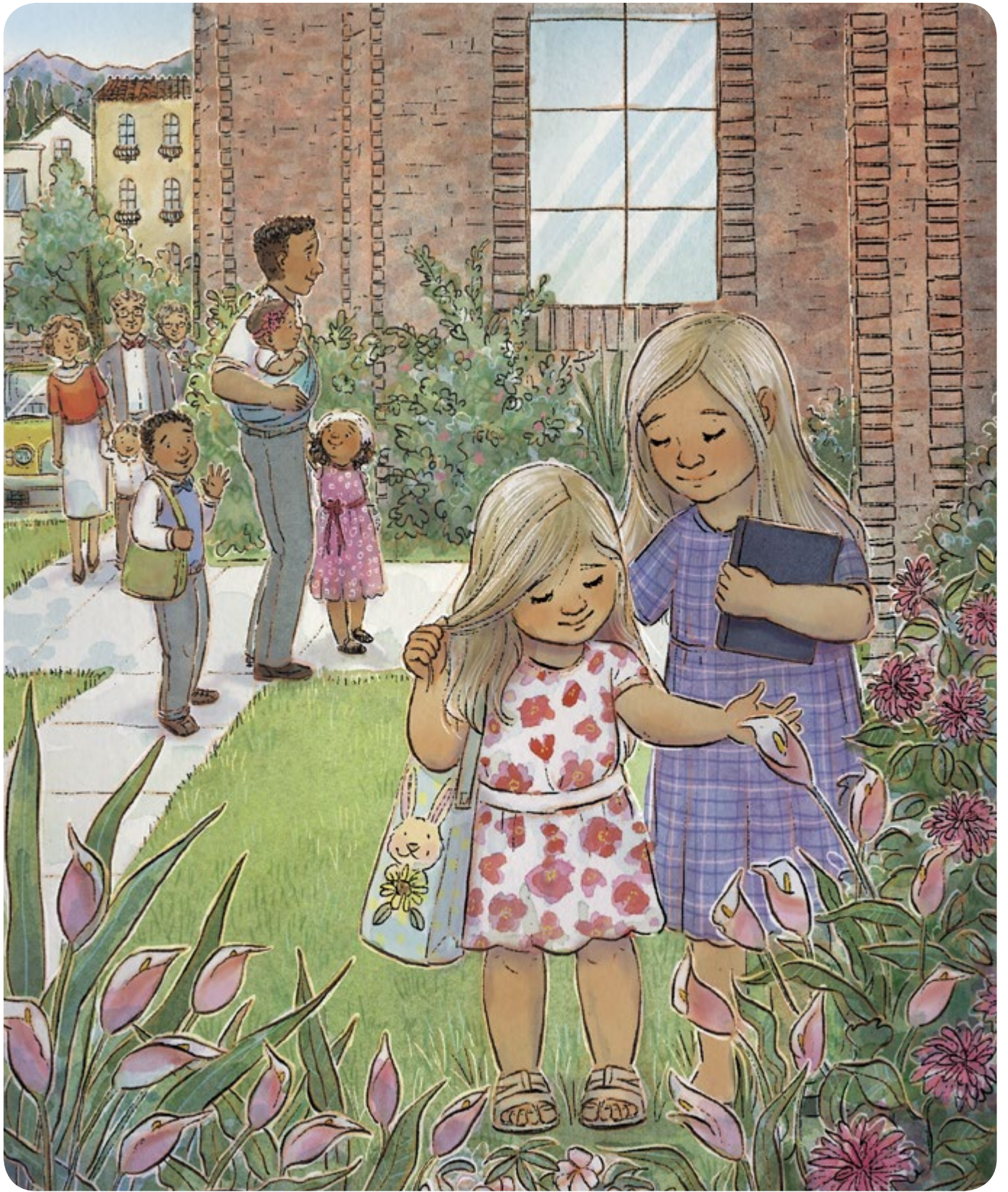


그 후에 예수님은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질병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은 죄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한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셨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친구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안으로 모셨어요.



사흘이 지난 후에 친구들은 무덤을 다시 찾았어요. 무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천사들이 말했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 이후에 다시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부활절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어요. ●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읽어 보세요.

주께 돌아가면

기쁘게 ♩ = 90-96

작사, 작곡: 샬리 디포드

F C Dm B \flat C F

1. 사 랑 하 는 어 린 - 양 길 잃 고 헤 매 면 목
2. 사 랑 하 하 는 어 린 자 녀 그 의 곁 떠 나 면 면 구
3. 날 위 해 해 길 밝 히 시 고 가 르 침 주 나 시 면 네 길

C7 Am Dm Gm C7

자 는 찾 아 가 네 그 이 름 부 르 며 그
주 는 는 찾 으 가 시 네 낮 에 도 밤 에 도 부
없 고 해 매 어 도 용 서 해 주 시 리 리 구

F Dm Gm C7 A A7 Dm

음 성 들 은 어 린 양 그 에 계 달 려 가 사
르 시 는 는 음 성 들 고 나 구 주 달 가 네 사
주 께 귀 기 을 이 고 죄 멀 리 하 리 라 기

B \flat C7 F Dm B \flat C7 F

랑 의 품 에 안 기 네 주 께 돌 아 가 면
랑 의 품 에 안 기 네 주 께 돌 아 가 면
뽀 으 로 채 우 시 리 주 께 돌 아 가 면

제인 맥브라이드
실화에 근거함

“너희는 [정직하게] 행하[라]”(고린도후서 13:7)

“**동** 생을 좀 돌봐 줘야겠구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빠랑 엄마는 편찮으신 분을 도와드리러 가야 하거든.”
자그마한 우리 집 바닥을 쓸고 있던 나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시는 엄마는 이렇게 자주 와드의 자매님들을 방문하러 가세요.
엄마는 “고맙구나, 알린.” 하고 말씀하시며 내 이마에 입맞춤을 하셨어요. “존은 자고 있고, 부엌 조리대에 빵 반죽을 올려 뒀는데 만지지는 말아 주렴.”

현관문 너머로 엄마와 아빠가 자동차를 타고 먼지 나는 길을 달려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엄마가 나를 믿어 주신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나는 부엌을 쓸다가 잠시 손을 멈추고는 빵 반죽을 들여다보았어요. 오늘 밤에 엄마가 빵을 구워 주실 거라 생각하니 정말 신이 났어요. 우리 집은 보통 갓 구운 빵에 집에서 직접 만든 잼을 발라 먹어요. 하지만 벌써 석 달 전에 잼은 다 떨어져 버렸죠.

잼! 잼을 생각만 했는데도 뭔가 달콤한 것을 먹고 싶었어요. 높다란 선반 위에 있는 설탕 단지를 흘깃 쳐다봤지요. 엄마가 잼을 더 만들기 위해 설탕을 모으고 계시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설탕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더 배가 고파졌어요. 결국 저는 의자를 조리대로 끌고 와서 선반으로 손을 뻗었어요. 설탕 단지에 겨우 손가락이 닿았어요. 단지를 선반 끄트머리로 끌어당겼는데 …

그만 단지가 선반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버렸어요! 얼른 붙잡으려 했지만, 단지는 퍽! 소리를 내며 빵 반죽 한가운데로 곤두박질쳤어요. 빵 반죽과 조리대, 바닥까지 설탕가루가 다 쏟아져 버렸죠.

“아, 안 돼!”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그 소리에 제 아기 남동생이 잠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그냥 울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이 난장판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달콤한 정직



먼저 존을 달래 준 다음, 나는 최선을 다해 설탕가루를 치웠어요. 반죽에서 단지를 꺼내어 깨끗하게 씻고, 조리대와 바닥에 흩뿌려진 설탕도 닦아 냈어요. 하지만 반죽에 들어간 설탕을 꺼낼 방법은 없었어요.

설탕 단지를 선반에 다시 올려놓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엄마는 단지가 텅 빈 걸 눈치채지 못하실지도 모를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았어요. 나는 단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엄마와 아빠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두 분이 집에 오셨을 때, 엄마는 설탕 단지를 단번에 알아보셨어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냥 설탕을 조금 맛보려고 했는데, 단지를 선반에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쏟아진 설탕을 다 치우려고 했지만, 반죽에 들어간 설탕은 꺼낼 수가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이 말들을 쏟아내듯이 말했어요.

엄마는 잠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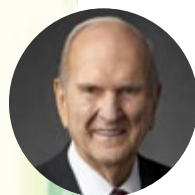
엄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는 “흠, 오늘 밤에 먹을 빵은 훨씬 더 달콤하겠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는 저에게 싱긋 웃어 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어서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설탕이 잔뜩 들어간 빵을 먹으며 정직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모두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하지.”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고, 회개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복해하신단다. 정직하면 언제나 축복이 뒤따르지. 처음에는 그러기 어렵더라도 말이지.”

나는 설탕을 쏟은 일 때문에 여전히 속이 상했어요. 내 실수 때문에 올해 우리는 잼을 조금 덜 먹게 되리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있는 그대로 말했다는 건 기뻐요. 설탕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느낄 수 없는 달콤한 기분을 느꼈어요. ●

글쓴이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산다.



“성스러운 계명을 지키면 언제나 축복이 옵니다. 성스러운 계명을 어기면 언제나 축복의 상실을 초래할 뿐입니다!”

러셀 엠 넬슨,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30쪽 참조.

인도를 방문한 베드나 장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부인인 수잔 베드나 자매님과 함께 교회 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전하기 위해 인도로 날아가셨어요.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손꼽히는 곳이지요. 이제 곧 인도에도 첫 번째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베드나 장로님 내외는 라자문드리라는 도시로 가셨어요. 라자문드리에 사도가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모임에서 이 소녀는 베드나 장로님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어린이들이 베드나 장로님과 악수를 나누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러 나라를 방문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배움을 얻는 기회를 축복받을수록,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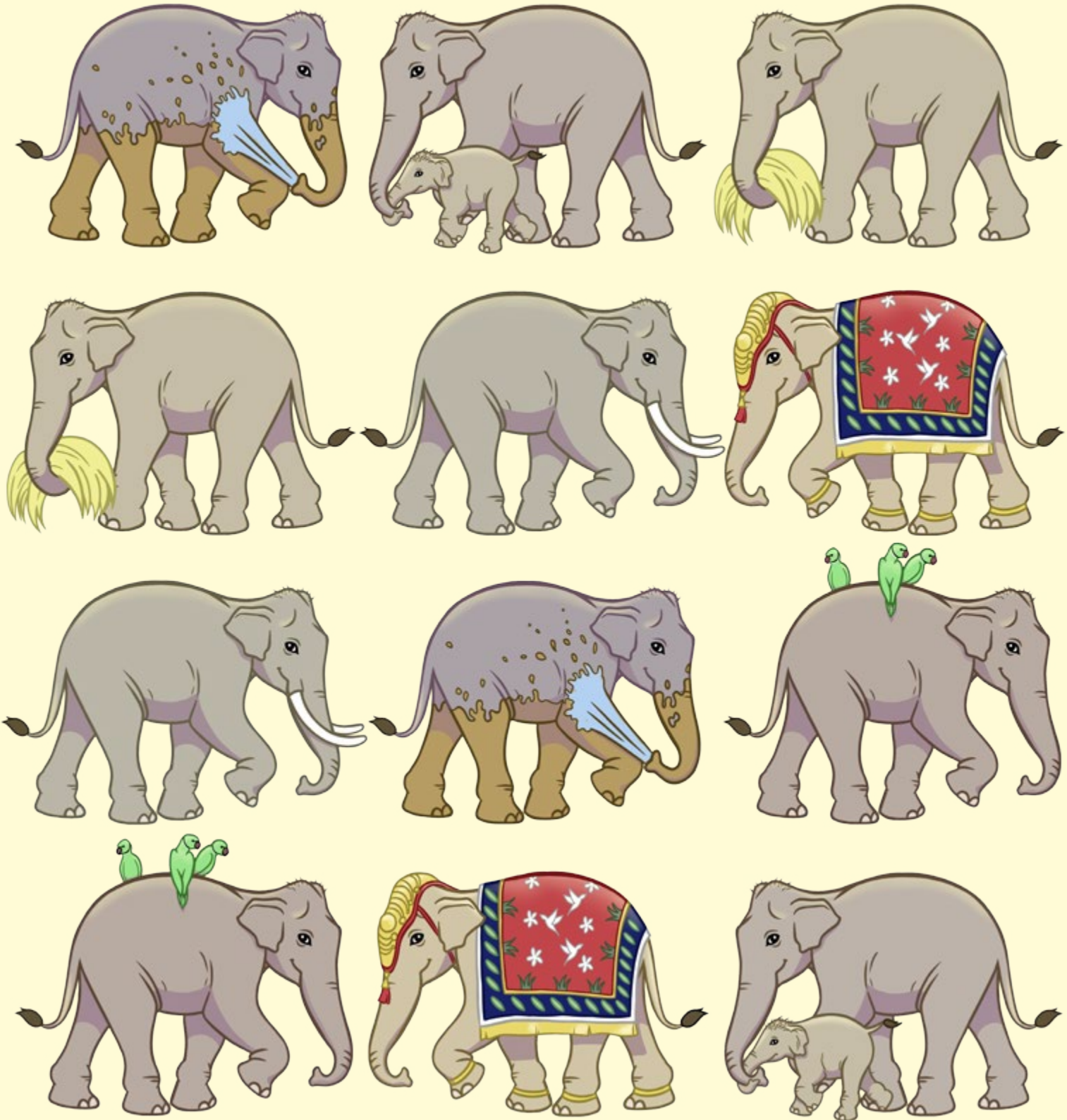
모두들 하나님의 사도가 전하는 간증을 들으며 행복을 느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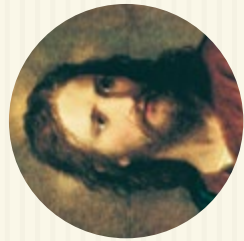


사진: 스카일라 뒤만

똑같은 코끼리를 찾아라!

인도에는 약 3만 마리의 코끼리가 살고 있어요. 아래에 있는 코끼리들을 몇 쌍이나 짝지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동물 중에 여러분은 어떤 동물들을 제일 좋아하나요?





우리의 선지자들과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이끄세요. 아래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대해 알아보세요. **친23쪽에 있는 사진을 오린 후**, 아래 도표에서 알맞은 자리를 찾아 테이프를 붙여 보세요. 테이프는 사진 위쪽에만 붙이세요. 그래야 사진을 들어 올려서 그 아래에 가려져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 첫 일자리는 라디오 수리점을 청소하는 일이었음.
- 번호사이자 유타주 대법원 판사였음.
- 브리검 영 대학교의 총장이었음.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심장 외과 의사였음.
- 표준 중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를 공부했음.
- 딸 아홉 명과 아들 하나를 둔 10남매의 아버지임.

러셀 엠 넬슨 회장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대 회장

- 고등학교 때 농구 선수였음.
- 집에 있는 침판 앞에서 아버지에게 물리학을 배움.
- 리스 대학(지금의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의 총장이었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항상 높은 표준을 지켜서 대학 시절 별명이 "감독"이었음.
-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했음.
-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음.

엠 러셀 벨라드 회장

심이사도 정원회

-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때 쿡 장로의 동반자였음.
- 교회 교육 기구에서 일했음.
-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이었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심이사도 정원회

- 어린 시절에 두 번이나 난민이 되었던 경험이 있음.
- 비행기 기장이었음.
-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스키를 즐겨 탐.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심이사도 정원회

-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에서 쿼터백이었음.
- 독일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 아버지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렇게 그의 아버지는 교회 회원이 되었음.
- 리스 대학이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로 바뀔 당시 그 대학의 총장이었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심이사도 정원회

- 항과 함께 경전을 연구하고 기도한 끝에 간증을 얻음.
- 중학교 장기자랑 대회에서 정차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을 봄.
- 필리핀과 태평양제도에서 교회 지도자로 봉사함.



쿠엔틴 엘 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자라면서 가족들이 먹을 빵을 손수 만들었음.
- 십 대 때 쿠모라 산 야외극에 참여했음.
-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변호사로 일했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일본에서 선교사로 봉사했고, 후에 그곳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함.
- 운동 장비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창업함.
- 교회 전체를 감리하는 감독으로 봉사함.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가운데 이름인 거너[Gunnar]는 "용감한 군인"이라는 뜻임.
- 11살 때 가족과 함께 유타주에서 스웨덴으로 이주했음.
- 심장 전문 의사였음.



데일 지 렌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미국 아이디호주에 있는 목장에서 성장함.
- 프랑스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후에 그곳에서 선교부 회장으로도 봉사함.
- 프랑스어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를 구사함.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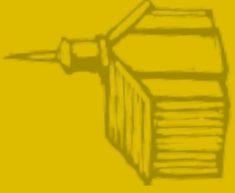
- 팥근 등 여러 동물을 좋아함.
-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곳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매우 좋아함.
- 가족 역사에 기록된 그의 첫번째 조상은 기원전 837년의 '드래곤 공'임.



게릿 더블유 공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미국 뉴욕시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함.
-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좌우명이 있음.
- 체코에 최초로 세워진 후기 성도 교회 건물을 헌납했음.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브라질 출신으로, 그곳에서 선교사로 봉사했고, 포르투갈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함.
- 어린 시절에 가족과 함께 교회를 알게 되었음.
- 열두 살 때부터 선교 사업을 준비함.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정답은 [lds.org/prophets-and-apostles](https://www.lds.org/prophets-and-apostles)에서 확인하세요.

잃어버린 외투

실라 킨드레드
실화에 근거함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러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교리와 성약 64:10)

“엄 마, 제 외투가 없어졌어요!” 브래드가 말했어요. 교회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갈 시간이었지만, 옷걸이 어디에서도 외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 걸어 둔 게 확실하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네. 바로 여기에 두었어요.” 브래드의 외투는 밝은 파랑과 빨강이 섞여 있어서 눈에 쉽게 띄는 옷이었어요.

“누가 다른 곳에 두었나 보다. 건물 안을 찾아보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엄마와 아빠, 브래드는 제각기 흩어져서 여러 방들을 살펴보았어요. 분실물 보관함, 예배당, 브래드의 주일학교 교실, 초등학교 교실, 그리고 모든 옷걸이를 살살이 다 뒤졌지요. 화장실까지도 살펴보았지만, 외투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누가 실수로 가져갔나 봐. 잘못 가져갔다는 걸 알게 되면 다음 주에 돌려줄 거야.”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외투를 찾을 때까지는 전에 입던 외투를 입으렴.” 하고 말씀하셨어요.

브래드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전에 입던 외투는 싫었거든요. 그 외투는 얇고 색이 바랜 데다가 이젠 브래드가 입기에는 너무 작았어요. 브래드는 빨강과 파란 색이 돋보여서 자기를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만들어 주는 새 외투를 정말 좋아했어요.

브래드는 ‘아마 내 외투가 너무 멋져 보여서 누가 훔쳐 갔을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모두 정직해야 하잖아요. 브래드는 이 도둑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계획을 단단히 세웠어요. 브래드는 다음 주 일요일에 누가 자기 외투를 입고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발견하면, 외투를 잡아채고 이렇게 소리칠 작정이었어요. “도둑이야!” 외투를 가져간 걸 후회하도록 말이지요.

브래드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일요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다음 일요일은 외투를 입기엔 날씨가 너무 따뜻했고, 그다음 주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다음 일요일, 브래드는 누가 자신의 외투를 훔쳤는지 궁금해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을 모두 살펴봤어요. 저 키 큰 남자아이가 훔쳤을까? 아니면 여자아이가 그랬을 수도 있어. 브래드는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할 것 같았어요. 브래드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싫었어요.

교회 모임이 끝난 후, 브래드는 서둘러 건물 곳곳을 다니며 다른 가족들이 외투를 걸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브래드의 외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분실물 보관함도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외투는 없었어요. 외투는 어디 있는

걸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브래드는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 냈어요. 바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실 수 있다는 것을 브래드는 알았어요. 그날 밤, 브래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누가 제 외투를 가져갔는지 알려 주세요. 외투를 찾고 싶어요.”

브래드는 도둑의 이름이나 얼굴이 마음에 떠오르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대신 친구 칼이 생각났어요. 브래드는 초등학교에서 보통 칼 옆에 앉아요. 브래드와 칼은 같이 농담하고 까르르 웃기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칼은 지난 몇 주 동안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브래드는 칼이 보고 싶었어요.

만일 칼이 외투를 가져갔다면 어떻게 하죠? 어쩌면 칼은 브래드가 이제 자신과 절교할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 오는 게 두려웠을지 몰라요. 브래드는 칼이 다시 교회에 오길 바랐어요. 브래드는 만일 칼이 외투를 가져갔다고 해도 칼에게 소리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브래드는 칼을 용서해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다음 일요일, 칼은 여전히 초등학교에 오지 않았지만, 그 대신 새로운 남자아이가 보였어요. 그 아이는 빨강과 파랑 줄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하고 있었어요.

“멋진 넥타이네.” 브래드는 새로 온 남자아이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그 넥타이를 하고 있으니까 슈퍼히어로 같아.”

그 아이는 방긋 웃었어요.

브래드도 함박 웃음을 지었어요. 브래드는 이제 도둑을 찾고 있지 않았어요. 이제 브래드는 친구를 찾고 있었어요. ●

글쓴이는 미국 아이오와주에 산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에스토니아예요!



우리는 마고와 파올로예요.
올해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와 함께
에스토니아로 떠나 볼까요!



이곳은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탈린이에요. 약 800년 된 도시죠. 에스토니아에는 숲과 늪지 같은 야생 지역이 많아요. 사실, 에스토니아의 반 이상은 숲으로 덮여 있어요. 에스토니아에는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에스토니아어로 “안녕하세요”는 이렇게 말해요.

Tere!
(테레)

교회 이름은 이렇게 말하죠.

**Viimse Aja Pühade
Jeesuse Kristuse Kirik**

(비임세 아야 뤼하데 예수세 크리스투세 키릭)

에스토니아는 북유럽에 있어요.
에스토니아에는 2,000개가 넘는 섬이 있고, 약 13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요.





에스토니아에서는 식사로 무엇을 먹나요? 흑빵에 감자, 양배추, 사워크림을 곁들인 돼지고기나 절인 생선을 얹어 먹는데 이 음식의 이름은 “스프릿 샌드위치”예요.



에스토니아의 교회는 작지만 강해요. 이곳에는 약 천 명의 교회 회원들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성전은 핀란드 헬싱키에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나요?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조국을 기리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노래하고 춤을 추며 큰 축제를 열어요.

**에스토니아에서 오셨나요? 글을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에게 소중한답니다.**

우리와 에스토니아를
탐험해 주어서 고마워요!
다음에 만나요!

에스토니아에서 온 두 친구를 만나 보세요!



어느 날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제 곰돌이 인형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찾기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뒤에 저는 곰돌이 인형을 찾았고, 그날 좋은 꿈을 꿀 수 있었어요.

비앙카 제이, 7세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걸 좋아해요. 봉사를 하면 성신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고, 따스한 평안을 느끼게 돼요. 우리 자매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싶기 때문이지요.

피비 제이, 10세



새로워진 기분



제시카 라슨
실화에 근거함

에스토니아

“놀랄 일이 있단다!” Ema[에마]가 라스무스를 학교에서 데려오면서 말씀하셨습니다.[에마(Ema)는 에스토니아어로 엄마를 의미해요.] 두 사람은 다채로운 건물들이 줄지어 선 좁은 거리를 함께 걸어갔어요.

“저녁으로 로솔예[Rosolje]를 먹을 거예요?” 라스무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라스무스의 일곱 번째 생일에도 로솔예를 먹었지만, 순무 감자 샐러드와 함께 소금에 절인 청어를 곁들인 로솔예라면 언제라도 더 먹을 수 있었어요!

엄마는 방긋 웃으시며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버스에서 젊은 여성 두사람을 만났는데, 선교사들이래. 그 사람들이 오늘 밤 우리 집에 와서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 관해 이야기해 주기로 했어.”

라스무스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선교사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라스무스는 자기 방에서 소방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테레[Tere]! 테레[Tere]! 안녕하세요!”

선교사들이 아파트 안으로 걸어 들어오면서 엄마에게 인사했어요. 선교사들은 무거운 부츠를 벗고 엄마가 내 준 손님용 실내화로 갈아 신었어요. 엄마는 선교사들을 오렌지색 소파로 안내했어요. 라스무스는 문 뒤에 숨어 있었어요.

키가 조금 더 큰 여자가 라스무스를 알아보고는 싱긋 웃었어요. 그녀의 이름표에는 Öde Craig[오데 크레이그: 크레이그 자매를 의미함]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네 생일이 바로 얼마 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어.” 크레이그 자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단다.” 크레이그 자매님이 작은 카드를 내밀었어요. 라스무스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카드 속에는 한 남자가 하얀 옷을 입고 손을 뻗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니?” 크레이그 자매가 물었어요.

라스무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었어요. 생전 처음 본 그림이었으니까요. 그림 속의 남자는 친절하면서도 힘있어 보였어요. “웬지 왕일 것 같아요!” 라스무스가 말했어요.

자매 선교사는 둘 다 빙그레 웃었어요. “응, 맞아! 그분은 모든 왕 중의 왕이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란다.” 크레이그 자매 선교사는 표지가 파란 책 한 권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분에 관해 가르치는 책인데, *Mormoni Raamat*[모르모니 라맛], 물몬경이라고 해.”

라스무스와 엄마는 매일 라스무스가 등교하기 전에 물몬경을 함께 읽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라스무스는 반 친구들과 자연 관찰 산책을 한 후, 낮잠을 잤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라스무스와 엄마는 자주 자매 선교사들과 만났어요. 두 사람은 선교사들과 함께 물몬경에서 읽은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때로 엄마는 꼬아서 만드는 계피 빵인 *kringel*[크린젤]을 대접했어요. 주말에 라스무스와 엄마는 자전거를 타거나 바닷가로 소풍을 갔어요. 때로는 숲이나 두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강을 따라 오랫동안 산책을 할 때도 있었지요.

그렇게 숲 속을 산책하던 어느 날, 엄마는 라스무스에게 침례를 받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라스무스는 활짝 웃었어요. 선교사들이 엄마에게 침례받는 것에 대해 기도해 보라고 했거든요. 엄마는 답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침례받을지도 안단다.” 엄마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디일 것 같니?”

라스무스는 선교사들이 침례에 관해 가르쳤던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선교사들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강물 속에 계시는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 주었어요. ...

“강이요!” 라스무스가 외쳤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그 강.” 한 주 뒤에 라스무스는 선교사들과 교회의 회원들과 함께



강둑 위에서 있었어요. 엄마는 침례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물밑으로 완전히 잠겼어요.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엄마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라스무스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파란 물, 푸른 풀 속에 핀 하얀 들꽃, 그리고 어머니의 미소.

“침례받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나중에 라스무스는 사람들이 다 함께 선교사가 가져온 쿠키를 먹고 있을 때, 엄마에게 살짝 여쭙어 보았어요.

“멋졌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강물 속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었지. 정말 새로워진 기분이야!” 엄마는 라스무스를 꼭 안아 주었어요.

“저도 다음 생일에는 엄마와 예수님처럼 침례받고 싶어요.” 라스무스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저도 새로워진 기분을 느끼고 싶어요!” ●

글쓴이는 미국 텍사스주에 산다.





레이나 아이 아부르도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니카라과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모든 일을 오빠와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등교하고, 함께 물건을 사러 다녔습니다. 우리는 집 뒷마당에서 온갖 모험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홉 살 때, 매우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오빠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빠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어딜 잠시 다녀왔다고 말하면서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며 이따금씩 문을 뚫어져라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빠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도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아직도 오빠가 그리웠지만, 다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대해 배우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부활절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부활에 대해 생각하면서 오빠를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돌아오는 것을 상상하곤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성신이



주는 느낌이었고, 그 느낌은 저에게 위로와 인도가 되어 주었습니다. 언젠가 오빠는 실제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오빠를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나눌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평안을 느끼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절에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

위로 카드

이 카드들을 오린 다음, 반으로 접거나 그대로 책갈피로 사용하세요. 이 책갈피를 경전에 끼워 두거나 다른 곳에 두었다가 슬프거나 외롭거나 두려울 때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18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요한계시록 21:4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이는 나 주가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

교리와 성약 68:6



어린이 발표

저는 성전을 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레베카 시, 9세, 베네수엘라 아라과



어느 날 차에 탔는데,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엔진을 확인했지만 마찬가지로였어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기도했어요. 몇 분 뒤, 차 시동이 걸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저를 도와주실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브루클린 비, 9세, 과테말라 케트살테낭고



2년 전에 한 남자아이가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쌀쌀하게 굴었어요.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 친구를 싫어하고 등을 돌렸죠. 그 친구는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제 주변 친구들이 그걸 알아채고 저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면 제가 더 행복해지고 안전해질 거라고 믿어요. 용기를 내어 자기 생각을 말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줄 친구들을 찾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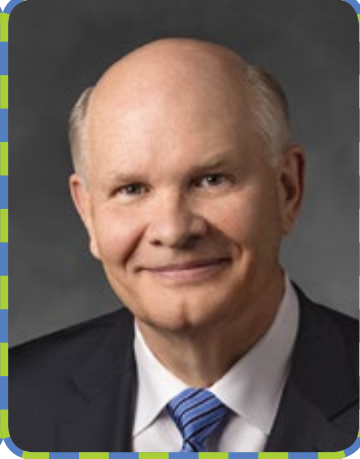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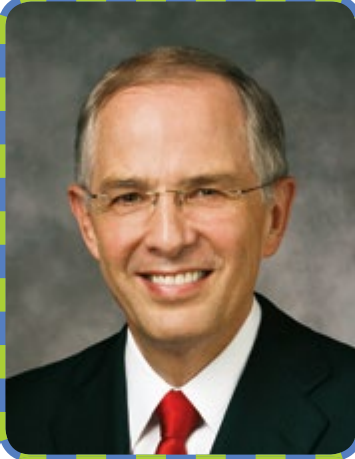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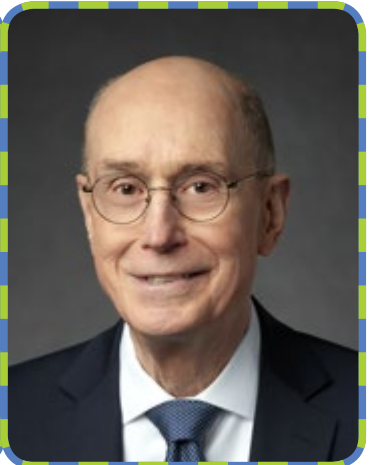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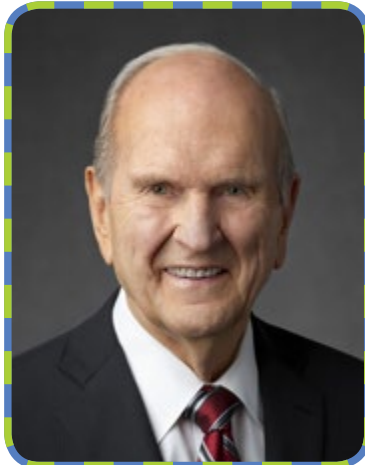
베스티나 케이, 11세, 리투아니아 빌뉴스



저는 저보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새로운 축구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해요. 그건 제가 좋아하는 봉사 방법의 하나예요.

사샤 케이, 11세, 러시아 모스크바

이 사진들을 이용해서
친12~13쪽을 채워
보세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이번 달 『친구들』에는 여러분의 가족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와 활동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번 달 내내 부활절에 대해 즐겨 생각해 보기를 희망합니다!

-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친2쪽)—러셀 엠 넬슨 회장이 전하는 부활절 메시지
- “예수님은 나의 구주”(친3쪽)—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을 묘사한 색칠 공부 활동
- “부활절 이야기”(친4~6쪽)—경전 이야기를 묘사한 삽화
- “주께 돌아가면”(친7쪽)—회개를 아름답게 표현한 새로운 노래
- “새로워진 기분”(친18쪽)—예수님에 대해 배운 에스토니아 소년의 이야기
-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친20쪽)—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자매의 부활에 대한 간증

여러분의 가족이 이러한 이야기와 활동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우리에게 알려 주시겠습니까?

축복된 부활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친구들』

New Friend

50 E. North Temple Street,
Room 239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liahona@ldschurch.org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목 차

- 친2 제일회장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 친4 경전 이야기: 부활절 이야기
- 친7 음악: 주께 돌아가면
- 친8 달콤한 정직
- 친10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도들: 인도를 방문한 베드나 장로
- 친12 우리의 선지자들과 사도들
- 친14 잃어버린 외투
- 친16 안녕하세요? 여기는 에스토니아예요!
- 친18 새로워진 기분
- 친20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 친22 어린이 발표
- 친23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사진

친구들 표지
삽화: 파트리시아 카스탈레오